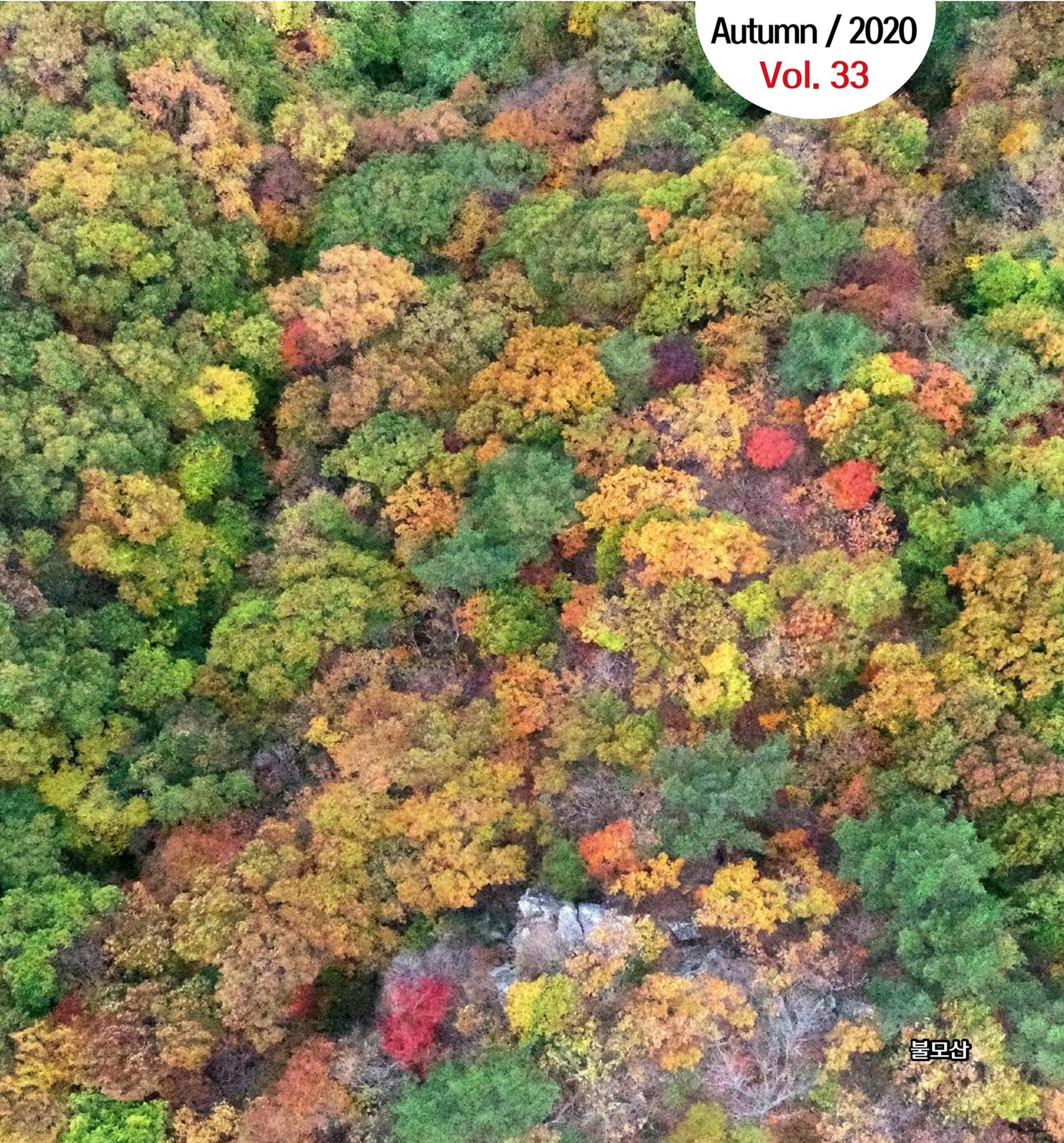


창원의회소식

열린마당

Autumn / 2020

Vol. 33



불모산

시민의 눈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창원시의회



창원시의회 통권 제33호

발행인 | 창원시의회 의장

발행처 | 창원시의회 사무국

제작부서 | 창원시의회 의회홍보담당

발행일 | 2020년 10월

주소 |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전화번호 | T. 055)225-5334



Contents

02 개회사

04 의원현황

10 의정활동

10 주요안건 처리현황

20 5분 자유발언

30 시정 질문 및 답변

32 건의안·결의안

40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활동

46 의원동정

46 성산구 지역 의원포커스

53 의원연구단체 활동

54 포토·뉴스광장

61 의원칼럼·기고

71 2020년도 회기 운영계획



QR코드를 인식시키면
개회사 동영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104만 창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인 10월, 제99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하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비회기중에도 연구 활동과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의정
활동에 매진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1회 대한민국 헌정대상’ 지방의정 부문 대상을
수상하신 이찬호 전 의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8일 오동동문화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창원시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41년 전 우리 지역에서 울려 퍼진
민주화 함성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소중한 유산이자,
민주주의가 이어질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
창원시의회도 그 날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며, 시민들 편에서
시민이 행복한 창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 경제는 위축되었고 시민들은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시는 정부지원에서 소외된 계층에 ‘창원형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활성화 등 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고민 끝에 개최하는 ‘마산국화 작품 전시회’는 화훼농가와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방역에 각별히 신경을 기울여 이번 행사가 무사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이러한 노력들이 쌓이면 시민들의 피로감도 점차 사라지고, 침체된 경기와 고용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27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시민을 위한 정책이 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재래시장과 도심상권은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창원시의회는 우리의 일상을 되찾는 날까지 방심하지 않고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고,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없는지 작은 부분까지도 면밀히 살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날씨입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창원시의회 의장 이 치 우

의장단



의장
이 치 우
국민의힘
창원더선거구
(웅천,웅동1·2동)



부의장
노 창 섭
정의당
창원마선거구
(상남,사파동)



의회운영위원장
조 영 명
국민의힘
창원파선거구
(양덕1·2,합성2,구암1·2,봉암동)



기획행정위원장
백 태 현
국민의힘
창원가선거구
(동읍,북면,대산면,의창동)



경제복지여성위원장
문 순 규
더불어민주당
창원파선거구
(양덕1·2,합성2,구암1·2,봉암동)



문화환경도시위원장
박 춘 덕
국민의힘
창원너선거구
(이동,자은,덕산,풍호동)



건설해양농림위원장
이 천 수
국민의힘
창원사선거구
(구산,진동,진북,진전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영명
국민의힘
창원파선거구
(양덕1·2,합성2,구암1·2,봉암동)



부위원장
구점득
국민의힘
창원나선거구
(팔룡,명곡동)



김상찬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상현
더불어민주당
창원하선거구
(충무,여좌동)



심영석
더불어민주당
창원더선거구
(웅천,웅동1·2동)



이종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헌순
국민의힘
비례대표



정길상
국민의힘
창원아선거구
(현,가포,월영,문화,반월중앙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백 태 현
국민의힘
창원가선거구
(동읍,북면,대산면,의창동)



부위원장
김 상 찬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공 창 섭
더불어민주당
창원다선거구
(봉림,용지동)



김 순 식
국민의힘
창원차선거구
(교방,합포,산호동)



김 종 대
더불어민주당
창원타선거구
(회원12,석전,회성,합성1동)



박 남 용
국민의힘
창원바선거구
(가음경,성주동)



박 성 원
더불어민주당
창원자선거구
(완월,자산,오동동)



이 우 완
더불어민주당
창원카선거구
(내서읍)



정 순 욱
더불어민주당
창원거선거구
(태백,경화,병암,석동)



조 영 명
국민의힘
창원파선거구
(양덕1·2,합성2,구암1·2,봉암동)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
문순규
 더불어민주당
 창원파선거구
 (양덕1·2,합성2,구암1·2,봉암동)



부위원장
이현순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경희
 더불어민주당
 창원라선거구
 (반송,중앙,웅남동)



김상현
 더불어민주당
 창원하선거구
 (총무,여좌동)



김인길
 국민의힘
 창원거선거구
 (태백,경화,병암,석동)



박선애
 국민의힘
 비례대표



임해진
 국민의힘
 창원타선거구
 (회원12,석전,회성,합성1동)



전병호
 국민의힘
 창원자선거구
 (완월,자산,오동동)



최영희
 정의당
 비례대표



최은하
 더불어민주당
 창원가선거구
 (동읍,북면,대산면,의창동)



최희정
 무소속
 창원차선거구
 (교방,합포,산호동)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박 춘 덕
국민의힘
창원내선거구
(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



부위원장
정 길 상
국민의힘
창원아선거구
(현, 가포, 월영, 문화, 반월중앙동)



김 우 겸
더불어민주당
창원나선거구
(팔룡, 명곡동)



노 창 섭
정의당
창원마선거구
(상남, 사파동)



박 현 재
국민의힘
창원다선거구
(봉림, 용지동)



이 중 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 찬 호
국민의힘
창원라선거구
(반송, 중앙, 웅남동)



이 해 련
국민의힘
창원하선거구
(충무, 여좌동)



지 상 록
더불어민주당
창원사선거구
(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진 상 락
국민의힘
창원카선거구
(내서읍)



한 은 정
더불어민주당
창원마선거구
(상남, 사파동)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
이 천 수
국민의힘
창원사선거구
(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부위원장
심 영 석
더불어민주당
창원더선거구
(웅천, 웅동12동)



구 점 득
국민의힘
창원나선거구
(팔룡, 명곡동)



권 성 현
국민의힘
창원가선거구
(동읍, 북면, 대산면, 의창동)



김 경 수
국민의힘
창원마선거구
(상남, 사파동)



김 장 하
더불어민주당
창원가선거구
(동읍, 북면, 대산면, 의창동)



김 태 응
더불어민주당
창원너선거구
(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



백 승 규
더불어민주당
창원바선거구
(가음정, 성주동)



손 태 화
국민의힘
창원파선거구
(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



전 홍 표
더불어민주당
창원아선거구
(현, 가포, 월영, 문화, 반월중앙동)



주 철 우
무소속
창원나선거구
(팔룡, 명곡동)

제96회 임시회 총2건 (7.1)



의결목록

- 제9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원안가결>
-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가결>



주요안건 처리내용

■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 출 자 창원시장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56조제3항 및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기 위함.

처리결과 수정가결

위원회명	위원정수	위원장	추천위원	비고
기획행정위원회	10명	백태현	박남용, 조영명, 김순식, 공창섭, 박성원, 이우완, 김종대, 정순옥, 김상찬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11명	문순규	이헌순, 박선애, 전병호, 임해진, 김인길, 최영희, 최은하, 김경희, 최희정, 김상현 의원	
문화환경도시위원회	11명	박춘덕	박현재, 이찬호, 정길상, 진상락, 이해련, 김우겸, 한은정, 이종화, 지상록, 노창섭 의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11명	이천수	구점득, 주철우, 권성현, 김경수, 손태화, 김장하, 백승규, 전홍표, 김태웅, 심영석 의원	

제97회 임시회 총19건 (7.16. ~ 7.23.)



의결목록

■ 제9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원안가결>
■ 지방분권법 일부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 STX조선해양 정상화 지원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 두산모트를 매각 중단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 여성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창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 창원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가결>
■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창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휠체어컬링팀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동의안	<부결>



○ 주요안건 처리현황

 **주요안건 처리내용**

<p>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p>제 출 자 전홍표 의원 등 13명</p> <p>심사결과 원안가결</p> <p>제안이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 진실규명의 범위에 따라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정의를 통해서 6·25전쟁 전후 창원시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고자 함.</p> <p>주요내용 •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정의 변경 (안 제2조제1호)</p>
<p>창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p>	<p>제 출 자 문순규 의원 등 13명</p> <p>심사결과 수정가결</p> <p>제안이유 장년층에 대한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직장 은퇴자 및 은퇴준비자 등 예비 노년 세대에게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p> <p>주요내용 •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지원사업 및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지원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안 제13조)</p>
<p>창원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p>	<p>제 출 자 이종화 의원 등 22명</p> <p>심사결과 원안가결</p> <p>제안이유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p> <p>주요내용 •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회원 및 회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대여수량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연회비 납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 연회비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안 제13조)</p>
<p>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p>제 출 자 한은정 의원 등 42명</p> <p>심사결과 원안가결</p> <p>제안이유 환경미화원 근골격계 질환 및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소각용 종량제봉투 100리터 규격을 폐지하고 75리터 규격 추가하고자 함.</p> <p>주요내용 • 소각용쓰레기수거용 종량제봉투 100리터 규격을 폐지하고 75리터 규격 신설(안 별표 1) • 종량제 폐기물 무게 상한 규정 개정(안 제7조) - 100리터 봉투 : 25kg 이하(삭제) - 75리터 봉투 : 19kg 이하(신설) • 100리터 종량제봉투의 경과조치(안 부칙 제2조)</p>

창원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박선애 의원 등 15명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창원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인식개선 등에 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주철우 의원 등 36명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고 권리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배치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산업용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일때는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수 없다는 조항 삭제(안 제5조제1항제1호)
 - 연접한 산업용지의 합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산업용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필지의 분할 후 5년 이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제한 조항 삭제(안 제5조제2항 및 안 제5조 제3항)
 - 관리기관은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시 승인 전 건축 인허가 사항 등에 대하여 시장에게 협의하여야 한다는 조항 삭제(안 제6조제2항)
 -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수정, 보안등의 의견 시 설립자에게 통보 및 설립자는 그 의견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조항 삭제(안 제6조제3항)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동의안

제 출 자 노창섭 의원 등 2명

심사결과 부결



제98회 임시회 (9.15. ~ 9.24.) 총30건



의결목록

■ 제9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원안가결>
■ 대구-창원 철도물류망(창원산업선)구축 대정부 건의안	<원안가결>
■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원안가결>
■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원안가결>
■ 창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 창원시 영유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창원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증진 조례안	<수정가결>
■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원안가결>
■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원안가결>
■ 창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먹는물 등의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 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국비 반영 국회 건의안	<원안가결>
■ 스타필드 교통대란의 실효성있는 대책 촉구 결의안	<원안가결>



주요안건 처리내용

창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김우겸 의원 등 36명

제 안 이 유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중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창원시 영유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이종화 의원 등 21명

제 안 이 유 영유아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생존수영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최영희 의원 등 24명

제 안 이 유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 주요내용**
-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6조 및 제37조)
 - 지원센터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8조)
 - 지원센터의 위탁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9조~안 제41조)

○ 주요안건 처리현황

창원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증진 조례안

제 출 자 전홍표 의원 등 10명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안이유 최근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기기인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의 보급 및 이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사고 발생도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법적 근거 미비로 이용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으므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 및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전교육 및 안전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 시범구역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창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구점득 의원 등 12명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역학조사 필요성 및 역학조사관 임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감염병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창원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박선애 의원 등 15명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안이유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시민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및 창원 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에 대한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최영희 의원 등 24명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는 공동주택단지 내 경비원 등 공동주택종사자들의 인권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과 주거공동체 상생문화 조성을 위하여「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동주택종사자의 정의 추가 및 적용 범위의 변경에 대한 사항(안 제2조 및 제3조)
 - 주거공동체 상생문화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 보조금의 지원대상 시설물의 추가(안 제5조)
 - 공동주택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 추진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보조금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5조의2)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에 대한 윤리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의4)
 - 공동주택종사자의 피해구제 조치에 미흡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 사항 추가(안 제6조)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김상찬 의원 등 28명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제1항 중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범위를 “6·25전쟁 중”에서 “1945년 8월 15일부터 6·25전쟁 전후의 시기 민간인 희생자”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명칭이 그 조례의 성격, 정체성, 적용 범위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창원시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제97회 창원시의회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0. 7. 16. 화)

“ '효재의 길' 조성을 위한 제안 ”



이 종 화 의원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과 여성 운동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이이효재 선생의 삶은 우리나라 여성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라고 할 수 있다. 그는 해방 직후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사회학 석사 학위를 받고 모교인 이화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가르쳤다. 재직 중에는 우리나라 대학 최초로 여성학을 개설했으며 유엔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실체를 밝히고 일본군의 파렴치한 만행을 전 세계에 알려 국제적 공론화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후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혐의로 3년 동안 대학에서 해직되었으며 복직 후에는 호주제 폐지와 성매매방지특별법을 만드는 데 앞장서는 등 독재와 가부장적인 사회에 정면으로 맞섰다. 퇴직 후에는 고향인 진해에 내려와 마지막 연구 과제로 설정했던 가족 연구에 매진하였으며, '사회복지연구소'를 설립하여 지역 여성 운동가들과 함께 여성 및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 등 여성운동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이이효재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효재의 길'을 조성하여 창원시민에게는 자랑스러운 여성 지도자의 도시라는 자긍심을 갖게 하고, 타지역 방문객에게는 창원시의 소중한 역사와 사회적 지식을 제공할 수 있기를 당부드린다.

“ 북면지역 소규모 기업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방안 및 지원방향과 북면 지개 - 동읍 남산 간 연결도로 통행료 산정 제안 ”

지난 2019년 3월 18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님들의 동의와 허성무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책임성 있는 업무추진으로 '창원시 북면 동전일반산업단지 수용성 절삭유 업종제한 규제 완화 건의(안)' 대정부 건의문을 관계 중앙부처에 제출했다. 그 결과 환경부에서 2020년 4월 1일 자 '낙동강 하류 유역 폐수 배출시설 설치 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법규를 개정 고시하였고, 이에 동읍, 북면, 대산면에 수용성 절삭유 업종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기업유치를 위한 전략이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투자금액, 상시고용 인원수 등 지원 세부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기업에 대한 지원내용과 지원기간을 늘려 북면, 동읍, 대산면 지역 소규모 기업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북면 지개-동읍 남산 간 연결도로 통행료에 대한 창원시 답변에 따르면 도로공사 사업시행사와 실시협약 시 소형차 기준 1,100원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도로의 이용자는 도시형 농촌 시민이 대부분인 것을 감안하여, 소형차 기준 900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지역 주민과 중소기업인들의 의견을 말씀드린다. 창원시는 통행료 산정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권 성 현 의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인터넷방송(5분 자유발언) 또는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하는 해(海)맑은 마산만, 시민의 참여로 완성하자”



지 상 록 의원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작년 10월 허성무 창원시장은 ‘수영하는 해(海)맑은 마산만 부활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2023년까지 COD 1.7(mg/L)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창원시는 16개 부서로 구성된 마산만 수질개선 TF팀을 구성해 45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고 마산만 수질은 2018년 COD 2.2에서 2019년 COD 1.96(mg/L)으로 개선되었다. 또한 2018년부터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창원물생명연대 등 7개의 시민단체가 마산만과 연결된 36개의 하천 오염물질 유입지점을 확인하고 행정기관에서 이를 개선했는지 매년 점검하고 있다. 이렇듯 마산만의 수질 개선 노력은 창원시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이 필요하다. 바닷가를 찾는 관광객들이나 낚시객들은 발생한 쓰레기를 되가져가야 할 것이며 마산만 인근 양식장에서도 해양 쓰레기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현안업무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인력의 현실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장님의 전폭적인 행정적 지원을 당부드린다.

“확대되는 사회복지제도! 인권과 복지 없는 공무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얼마 전 마산합포구청에서는 40대 남성이 긴급 생계지원금이 들어오지 않았으며 50대 여성 공무원에게 주먹을 휘둘러 실신하게 했다. 이로 인해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수급자가 아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복지와 인권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향후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각종 복지정책 역시 늘어남에 따라 공공부문 사회복지 및 담당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불만 발생과 폭력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생계와 직결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강도 높은 민원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계속되는 민원인들의 폭언과 폭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루빨리 전화 녹취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원실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공무원들이 민원인들로부터의 폭력에서 벗어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나아가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업무수행 중 민원인 폭력으로부터 체계적 대응을 위한 매뉴얼과 예방 방안 마련을 위한 TF팀 구성도 당부드린다.



전 홍 표 의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9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 7. 23. 화)

“양덕2동 메트로1차 아파트 앞 공원과 옆 주차장을 연계하여 ‘가족친화형 야구테마공원’을 조성하자”



조영명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최근 ㈜유니시티에서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2동 지상 1층 공영주차장 공간에 녹지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녹지공원 조성 시 기존 분수공원을 포함하고 인근 창원NC파크 마산구장과 연계하여 외곽 인도는 산책로로, 공원 내는 야구 관련 상징물 비치하여 마산회원구 주민들뿐만 아니라 야구장을 찾는 창원시민 모두에게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였으면 한다.

이를 위해 공원 조성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며 필요 시 전문가를 통한 용역 시스템 구축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녹지공원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양덕1동에 조성되는 ‘가족친화형 야구 테마공원’이 창원시의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한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한다”

코로나 19는 습도가 낮은 온도에서 가장 생존을 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곧 닥칠 겨울철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첫째, 신속하고 공격적 대응에 필수인 원활한 마스크 공급에 필요한 안정적 공급망 개척과 창원시 비축량은 충분한지? 둘째, 물건 사재기 상황이 재연될 경우 생활필수품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가능한지? 셋째, 필수품인 손 소독제와 방역용품의 공급망 개척과 비축물량 확보는 되어 있는지? 넷째, 사회적 약자(무료급식소, 아동보호시설, 단기 아르바이트 등)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배려가 가능한지? 다섯째, 가을, 겨울 축제를 취소할 경우 사회적 동의는 가능한지? 여섯째, 제2의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대비해 재정 낭비 요인을 막고, 긴축재정 필요성에 대한 대책과 점검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지? 마스크 착용하기, 손 씻기,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최소한의 위생 행동은 본인과 타인을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절이다. 앞으로 다가올‘포스트 코로나’시대에는 복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코로나 이후 우리의 삶은 약자를 배려하고 낮은 자세로 일하는 사람 중심 창원시가 되기 위해 나부터 우리부터 바꾸어 나가야 한다.



정순욱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인터넷방송(5분 자유발언) 또는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촉구하며...”



손 태 화 의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은 2003년 12월 구 마산시와 해양수산부가 서항·가포지구 개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가포지구는 항만배후단지로서 2015년 5월 준공되었으며 서항지구는 2011년 3월 정부 TF팀에서 매립면적을 최초 34만 평 규모에서 19만 4천 평 규모로 축소 결정하였다. 그 후 2013년 11월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개발 계획 및 실시 계획 변경 등을 거치면서 마산만 항로준설로 인한 마산해양신도시 하부공간 매립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상부 개발을 위한 복합개발 시행자 공모를 2015년 5월부터 2018년 8월까지 3차에 걸쳐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창원시는 주거·상업 위주 개발 계획과 신용도 미충족, 심의점수 미달 등의 사유로 제3차 공모사업을 선정하지 않은 채 2년이 흘렀다. 이제 창원시정연구원의 연구용역 보고안 대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시정연구원의 용역 보고안 대로 진행한다면, 사업 기간과

공공부문 사업비 규모 및 그 조달 방법을 의회에 보고하고 조속히 발표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한다.

“ 창원시 경비원 등 공동주택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

우리 시의 경비노동자 포함 공동주택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전하려 한다. 지난 7월 8일 정부는 지자체 표준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해 아파트 관리규약에 반영하도록 시도지사에 권고했다. 고용 승계와 유지 규정을 두거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독소조항이 없는 모범단지를 선정해 공동주택 지원금 인센티브를 주는 안이다. 우리 시도 관련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관리업체 선정 시 노동자 상생발전지수인 기존 경비원의 고용 승계 여부, 적법한 퇴직금 지급, 해당 용역회사 소속 경비원의 평균 근속 기간 등 세부 요소를 평가하여 담는다면, 퇴직금을 주지 않는 단기계약과 주민 갑질로 인한 사망과 해고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초단기 3~6개월 계약기간을 최소 1년으로 연장하여 경비노동자가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관리비 중 잡수익의 용도가 예비비로 수선유지비로만 쓰이는 것을 풀어 종사자 처우개선 환경에 쓰이도록 행정지도 해야 할 것이며, ‘시장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지원, 안전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는 조례 제4조의 내용대로 실태조사 의무년수를 담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최 영 희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안민고개길, 공휴일은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자”



백 승 규 의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안민고개길을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는 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안민고개길은 성산구 안민동과 진해구 태백동을 이어주는 고갯길이다. 그러나 이 안민고개길은 장북터널과 안민터널이 개통된 이후 사실상 교통로의 기능은 상실하고, 시민들의 산책로와 자전거 코스로 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시민들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민데크로드’를 설치한 바 있다. 그런데 안민고개길을 산책하는 보행자들은 여전히 넓은 도로 옆 비좁은 데크로드를 걷고 있다. 안민고개길의 이용객이 보행자 중심으로 넘어왔는데, 안민고개길의 구조는 자동차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안민고개길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안전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 안민고개길 차량 진입을 금지하고 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 일명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해 줄 것을 제안한다.

제9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0. 9. 15. 화)

“공공시설물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공공시설은 특성상 수익성을 따질 수 없겠으나 운영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열악한 지방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민간에서 운영이 어려운 체육 시설 및 문화시설 등 공공성과 공익성이 높은 시설물은 시에서 운영하고 경영이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민간경제와 관련된 시설물은 과감하게 매각하거나 민간위탁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에게 위탁되었으나 수요가 없거나 당초 설립 시 목적이 퇴색된 시설물은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신규시설 설치와 유치는 인력 총량제와 비슷한 창원시 공공시설물 총량제를 만들어서 적용하고 꼭 필요한 시설물만 건립하기를 제안한다. 창원시는 향후 공공시설물을 건립할 때에는 건립실적과 유치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차별화된 콘텐츠와 정확한 수요조사, 그리고 건립 이후 주민복지와 안정적인 수익 창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나를 짓더라도 제대로 된 공공시설물을 지어야 될 것이다.



구 점 득 의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인터넷방송(5분 자유발언) 또는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가격 급락지역 주택경기 안정화 대책 촉구”



심영석 의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주택가격이 급락한 창원시 특정지역(진해 동부지역인 웅동1동, 웅동2동, 웅천동)에 대하여 창원시의 대책을 촉구한다. 이러한 특정지역 주택가격 급락 원인은 대규모 신규 아파트의 물량과, 1·2대 통합 창원시의 신규 아파트 과다 허가 때문이다. 또한 원·투룸 개인사업자들의 과도한 경쟁 때문이다. 특정지역의 주택경기 불황과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화를 예방하기 위해 창원시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현재 허가된 아파트단지 착공시기를 지역발전에 조화롭게 조절하고, 신규 허가는 주택경기 안정 시까지 보류해 주기 바란다. 둘째, 신항만 건설 촉진법에 저촉되어 개발을 못하고 있는 원·투룸에 대하여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여 건물 3층까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사용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경제활동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인근 부산 명지는 3층까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 가능한 만큼 용원지역도 지구단위계획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현

용원동 2종 일반주거지역의 주거와 근린생활시설의 비율은 많은 개인사업자들을 범법자로 양성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최초의 한류스타 최치원 선생의 월영대와 월영광장, 조속한 완공을 바라며”

창원시는 2012년부터 월영광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2013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선정으로부터 시작된 본 사업은 2020년 6월 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까지 긴 세월이 걸려 진행되고 있다. 월영광장은 진주·통영·거제 등 서부경남과 연결되는 국도 14호선, 그리고 시내 도로 등 도로가 5갈래나 교차하는 창원시의 관문과도 같은 교통 요충지이다. 또한 마산지역에서도 가장 변화가이며 대학가 인근이라 창원의 얼굴이기도 한 곳이다. 고운 최치원 선생은 신라 말기를 빛낸 학자이자 문장가이며 동국18현의 일인으로 한국 유학사의 시작을 알리는 인물로 한국사의 중요한 역사 인물이다. 그러나 최치원 선생이 합포만에 머물면서 제자들을 가르친 곳으로 전해지는 월영대와 월영광장은 아직도 쓸쓸히 방치되어 있다. 월영광장 조성 기반 공사로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제라도 사업 완공으로 이어져 마무리 되길 요청한다.



전홍표 의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 국어책임관, 외부전문가 채용하여 내실있게 만들 때! ”



김 우 겸 의원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우리시는 2013년부터 국어책임관을 뒀지만, 문화예술과장이 겸직하면서 문화예술과 업무 전반을 보다 보니 사실상 국어책임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없었다. 물론 국어책임관으로서의 관련 자격증은 없으며 전문 경력이 전무하다. 우리시는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 제5조2항’에 따라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에 자문 또는 협조를 받을 수 있지만 이마저도 한 적이 없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빠른 시일 내’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국어책임관을 국어 전문가로 채용해 줄 것을 요구한다. 둘째, 보도자료 등 각종 계획·의회 공식 보고 문건은 국어책임관의 철저한 최종 검토를 통해 배포되도록 요청한다. 셋째, 경남도 내 한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정기적으로 한글 및 국어 관련 각종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상설화된 협의체를 구성해 줄 것을 요청한다.

“ 마산 창동 250년 골목과 100년 도로를 이대로 둘 것인가 ”

마산 창동 250년 된 골목 거리는 입구 표시만 있고 보여줄 것이 없다. 마산 창동 조창역사 유정당은 간판, 벽면, 바닥을 새롭게 하여 250년이라는 세월이 걸맞은 역사적인 볼거리가 있는 곳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또한 100년 된 구.강남극장 앞 도로를 현책거리로 조성하거나 창동예술촌과 연계해 활성화해 줄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내년 준공영제 시행 시 국가기념일을 상징하는 315번 버스 노선을 4·19 발상지인 마산 지역까지 연장하고,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인 10월 16일을 상징하는 1016번 버스를 신설해 줄 것을 제안한다. 끝으로 마산중·고등학교, 성지여중·고등학교, 월성, 완월, 무학초등학교 등 학교 밀집 지역인 자산삼거리에는 불법주차로 인하여 보행자의 사고 위험이 크며, 학생들은 통학로가 없어서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하루 속히 전용 통학로를 개설해 주길 건의한다.



박 성 원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인터넷방송(5분 자유발언) 또는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주택 단지에 주거안전 네트워크 구축하자 ”



김 상 찬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다 보니 공공임대주택에는 알코올의존증이나 조현병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분들의 거주 비율이 일반 거주지보다 높다. 우리 시는 현재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담당 대상자가 약 540여 명으로 이미 자체 업무도 많은 상황이라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우리시도 시민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복지관, LH공사 등과 주거안전 네트워크를 조속히 구축하여 공공임대주택 주거민이 안전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주민에게 건강과 안전, 일자리, 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 건강하고 튼튼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주거 안전네트워크를 조속히 구축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 무분별한 도로시설물은 최소화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을 수립하자 ”

도로 위 지역을 안내하거나 교통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된 각종 표지판 등 과도한 시설물은 오히려 장애 요인이 된다. 도로시설물 설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법과 조례를 정비하여 ‘친환경수도 창원시다운 도시’ 환경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 큰 공사의 경우는 용역업체를 통하여 진행하지만, 수시 정비에는 도로보수원을 최대한 운용하여 정비가 불량하거나 반복적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본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야간에 도로보수 작업을 한다고 한다. 물론 주간 작업보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나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목적에 부합하고 좀 더 안전한 작업환경 속에서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할 것을 건의한다. 다가오는 추경예산안 심사도 마찬가지이다.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은 반영하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정비, 수선하고 유지보수가 가능한 시설물은 아껴서 사용해야 할 것이다.



박 남 용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제9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 9. 24. 목)

“안민고개 루지 설치해 복합관광지로 개발하자”



박 춘 덕 의원
문화환경도시위원장

안민고개길은 장복산(582.2m) 산허리에 있는 약 9km의 고갯길로 진해구 태백동에서 성산구 안민동까지이다. 안민 고갯길 9km 중 태백동 4km와 안민동 3km 구간에 루지와 곤돌라를 설치하고 루지 도로에는 포시즌 특징을 살린 시설물을 설치해 친환경 복합관광지로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이 사업은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것으로 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은 전무하다. 고갯길 하나로 정상부의 전망대, 등산로, 루지, 곤돌라, 도로용 자전거, 특히 안민 도로에서 대발령까지 임도는 왕복 24km에 달하며 임도를 이용한 산악자전거는 루지 곤돌라와 연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도로용 자전거는 루지 영업 개시 전 오전과 야간시간에 고갯길을 이용할 수 있다. 한마디로 지형지물을 이용한 세계 최고의 친환경 복합 레저 스포츠 관광지로 탄생할 것이다. 안민고개가 창원의 대표 관광지로 탄생할 수 있도록 용역부터 시작하자.

“원이·창이 6차선 대로변 전용주거지역 문제점 해소”

인구 105만이 넘는 거대 특례시 지정을 앞두고 구 마산·진해지역의 6차선 대로변은 상가와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여 사람 사는 도시로 조성된 반면, 구 창원시의 주 관문인 원이·창이 6차선 대로변은 단독주택만을 건립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밤이 되면 암흑천지로 변하는 등 형평성 결여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원시의 건축 규제에 따른 자동차 연합회의 대법원 소송 결과 위헌으로 판결됨에 따라 6차선 대로변에 근린생활시설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으며, 특히 창원시 시정연구원의 도시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단독주택지 과밀화로 상가 추가 반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였음에도, 창원시는 호주 캔버라 시의 도시 기본계획 파괴 및 기반시설 부족 사유로 미반영하였다. 명곡, 명서, 봉곡, 사림동 6차선 대로변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대로변과 연접한 주택지에 대해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도록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인구 감소로 인한 도시 슬럼화 현상을 방지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원도심으로 정비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이 현 순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인터넷방송(5분 자유발언) 또는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의 시대, 직접 복지와 긴급 대응이 필요한 때! ”



최영희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재난의 시기, 소득 단절과 불황 극복을 위해 실시한 2회 추경 심사에서 아쉬웠던 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려 한다. 첫째, 몇 달 동안 수입이 없었던 특수고용노동자(복지관, 주민센터 강사 등)에 대해 이용주인 창원시가 고용유지 기금을 만들어 재난에 나서야 한다. 재난기금 사용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숙원사업 추진보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공의료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둘째, 복지재단을 연구중심이 아닌 직접복지인 창원형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 출발해야 한다. 지역 특색 프로그램으로 민간위탁을 견인해 내야 하며, 정기적 종사자 노동환경 간담회나 직장협의체를 지원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복지의 질을 높이는 빠른 길이다. 셋째, 창원형 배달앱, 동네마트 플랫폼 개발로 수수료를 낮추는 지원이 소상공인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므로 비록 배달앱 개발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지만, 최근 타지역처럼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10~17%에서 2~4%로 줄이는 시도와 지역상품권과 연계하여 월 70~80만원 부담을 줄이는 창원형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내년 1조 발행되는 누비전은 비싼 지류 발행을 낮추고 모바일과 캐쉬백이 되는 카드로 전환해 국비 지원이 줄어들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끝으로 방산·수소·AI처럼 스마트만이 아닌 경제혁신국이 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5인 미만 사업자 지원과, 기술이 있음에도 위기에 쓰러지는 기업에 고통 분담과 시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해맑은 마산만의 지속가능한 어업환경을 위하여... ”

최근 진해만의 양식장은 60% 이상이 폐사했다. 어민들은 이례없는 큰 피해를 입었고 뒤쳐진 제도적 문제로 인해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해의 원인으로 긴 장마와 폭우로 인한 빈산소수와 그리고 과포화된 양식장과 양식장의 오염된 환경이 문제로 꼽혔다. 어장관리법 제12조 1항에 따르면 어업면허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해 어장 청소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위반 시 최고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 조항으로 3년에 1번 어장 청소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는 형식적인 약식 청소로 실제 어장의 청소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바닷속 미세플라스틱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지금까지 사용이 전무한 친환경 부표의 지원금을 늘리고 할당량을 만드는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실제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전하고 깨끗한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 어민들의 변화를 위해 행정에서 이제 선제적으로 나서야 하며 그 중심에 창원시가 있었으면 한다.



지상록 의원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경남 미술의 역사, 동서 미술상의 존속이 필요하다”



김 경 희 의원
경북복지여성위원회

우리 고장의 문화예술의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지나칠 수 없는 이름이 있다. 바로 ‘동서미술상’을 제정한 고(故) 송인식 관장이다. 송 관장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1990년 사재 1억 원을 출연해 도내 최초의 민간 미술상인 ‘동서 미술상’을 제정하셨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3년 한국화랑협회 공로상과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그러나 IMF 경제 위기까지도 잘 버텨냈던 ‘동서미술상’은 모든 경비를 원금에서 지급하여 기금이 소진되는 지경에 이르렀으나, 다행히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경남메세나의 매칭펀드사업으로 지역 경제인인인 최충경 경남스틸 회장님의 지원을 받았고, 2015년부터는 리베라 컨벤션 김태명 회장님의 지원으로 유지되었으나, 이 후원이 올해로 끝나게 된다. ‘동서미술상’은 반드시 존속되어야 한다. 한 도시에 30년이 넘는 전통과 권위의 미술상이 있다는 사실은 예술 도시로서 지표이자 표상이며 자존

심이다. 또한 시민들에게는 문화적 자긍심을 갖게 하며, 문화예술인에게는 창작의 밑거름이며, 창원시는 예향의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동서미술상’이 과거의 역사로 사라지지 않도록 부디 정책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창원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창원교도소 이전에 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마산회원구 구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창원교도소 이전사업이 내서읍 평성리 일대에 2023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창원시의 전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국가사업이란 이유와 이전 대상 지역주민들의 민원의 이유로 창원시가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창원시는 이전 예상 부지(평성리 일대)의 민원 해결이 되지 않으면 도시계획 심의를 열지 않겠다는 방침을 법무부에 통보하였는데 하루빨리 도시계획심의회를 열고 행정적인 절차에 착수하여 마산회원구의 숙원사업, 창원시의 숙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기존 회성동, 석전동, 합성동 일대의 주민들은 환영할 것이고, 내서읍 평성리 일대 주민들의 반발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소외된 지역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그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본분이다. 지금이라도 허성무 시장님께서 직접 창원교도소 이전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마산회원구의 오랜 숙원사업이 제자리걸음 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한다.



진 상 락 의원
문화환경도시위원회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인터넷방송(5분 자유발언) 또는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는 자은변전소 옥내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라 ”



김 태 응 의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자은변전소 옥내화를 위해 2016년 9월부터 창원시와 한전 경남본부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2017년 7월에는 옥내화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옥내화 사업의 흔적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한전 경남본부측에서는 옥내화 사업을 착수도 못한 이유가 한전 본사로부터 옥내화 심의위원회의 사업승인 불허를 그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2020년 6월에 한전 경남본부는 창원시에게 새로운 MOU 협약체결을 요청했다. 재협약의 주된 내용은 ‘자은변전소 일원의 용도지역 변경을 명문화’할 것과 ‘옥내화 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용도 변경된 잔여 부지를 매각’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향후 잔여 부지가 매각 또는 개발되어 변전소와 인접한 주민들이 또 다시 옥내화 변전소의 타 지역 이전을 요구할 경우, 창원시와 한전은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러므로

한전 경남본부는 자은변전소 옥내화 사업 후 잔여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매각이 아니라 변전소로 인하여 그동안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했던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한 후 활용방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 하루 빨리 자은동 변전소 옥내화 사업이 마무리되어 지역주민들의 삶이 행복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한전 경남본부와 창원시는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 주길 바란다.



Q & A

제9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 9. 22. 화)

○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 특구 사업관련



구 점 득 의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질문 불모산지역개발에 보상비 지급 등 시재정에 많은 무리가 예상된다. 본의원이 1년전부터 국가산단 산업지에 1.26km의 유휴부지를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건의를 하기도 했는데 불모산지구외에 검토해보신 땅이 있는가?

답변 <스마트혁신산업국장> 강소특구지정을 위해서는 핵심연구기관이 있어야 한다. 핵심연구기관인 전기연구원 주변에 할 수 밖에 없었고, 전기연구원을 떠나서 이격거리 3km 외부에는 지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질문 군이 그린벨트해제를 포함한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 땅을 사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 <스마트혁신산업국장> 강소특구지역엔 전기연구원에서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만 이주할 수 있다. 관련기업 150여개 중 70%가 불모산지역에 입주 의향을 밝히고 있다. 또한 자동차연구원 등 관련 기관의 R&D를 받쳐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질문 창원 강소특구는 어려운 경제상황에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지만 예산투입이 과다하다고 생각된다. 향후 이 사업이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답변 <창원시장> 특정지역에 많은 지원을 받는 강소연구개발특구가 너무 많이 선정되어 나눠주기 식이 되지 않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창원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창원시 하수도사용조례 관련



손 태 화 의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질문 우리시는 하수도사업의 일환으로 도로변 관로교체와 정비에 수조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하수도 사업의 목적은 공용수면과 하천과 바다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30~40년이 지난 정화조에서 나오는 하수를 연결하는 사업이 시급하게 선행되어야 하지 않는가?

답변 <하수도사업소장> 하수관리정비사업을 제때 추진하지 못하면 지반침하로 인한 인명사고와 파손된 관에서 유출된 오수가 해양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 지적하신 가정오수처리를 위해서 배수설비 공사에 260억을 투입하였고 정비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질문 조례규칙 제19조에 따라 하수도요금 과오납은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조속히 환불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 <하수도사업소장> 2021년 5월에 배수설비 조사 및 DB구축 용역이 완료되면 직권조사에 감면 방안을 강구하고 환급처리하겠다.

질문 생활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일부만 유입 처리되는 하수관로 사용지역 대상자의 70%만 감면해 주게 되어있으나 이런 곳은 진해의 일부 지역 밖에 없다. 현재 확인 없이 감면이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답변 <창원시장> 의원님의 지적처럼 실체가 그렇다면 우리시 하수행정엔 문제가 있다.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또한 조례가 현실성이 없다면 실제행정이 담보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인터넷방송(시정질문) 또는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이스산업 위기극복 지원사업, 마산어시장 서부공영주차장 부실시공 관련



박선애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질문 마이스산업 위기극복 지원사업 선정과정이 공평하지 못했다는 민원이 있다. 신청자격 요건완화에 대한 안내 부족 및 해당 사업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다. 경상남도가 충분히 홍보하지 못했다면 우리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업체가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답변 <경제일자리국장> 앞으로 경남도와 협업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 또한 마이스업계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등 다양한 경제주체에 지원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질문 마산어시장 서부공영주차장 부실 공사가 심각하다. 시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뒤에도 균열은 심해질 것인데 향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답변 <경제일자리국장> 콘크리트 균열의 경우 하자보수 기간은 3년이다. 또한 하자보수 기간에 하자보수 신청이 되었으므로 균열 부분은 계속 업체에서 관리하게 된다. 최단 시일에 보완하도록 하겠다.

질문 향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시장님의 시정방침과 정책의지는?

답변 마이스업계 지원사업 추진 시 마이스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서부주차장은 적극 개선하여 이용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마산 어시장 주변의 경기를 살릴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

○ 스타필드 교통영향평가의 문제점



문순규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질문 스타필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정식이 아닌 약식으로 하였다. 법령상 약식과 정식에 어떤 차이가 있나?

답변 <안전건설교통국장> 약식은 대상지 주변 교차로 2개소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시간적 범위도 정식이 3년인 반면, 준공 후 1년을 기준으로 한다. 스타필드는 반경 3km 이내에 교차로 13개소를 대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질문 신세계는 많은 부분을 수용했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대형사업(교차로 입체화, 주차램프 입체연결, 도로전광판 설치)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창원 스타필드는 타지역과 비교 시 시설면적 대비 주차장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답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세계 측에서 국토부 규칙에 따라 입체교차로 설치 여부를 검토했으나, 입체교차로 없이도 교통량을 처리할 수가 있고, 해당지점은 교차로 간 거리가 짧아 설치가 곤란하며, 설치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는 검토의견이 있었다. 창원 스타필드 주차대수는 100㎡당 1.10으로 스타필드 하남(100㎡당 0.09) 대비 주차장 확보가 더 낫다.

질문 S-BRT와 스타필드 준공연도가 2023년이다. 일대에 엄청난 차량정체 혼잡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 <안전건설교통국장> S-BRT사업 설계 시에 스타필드 수요를 반영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교통 문제를 최소화 할 것이고, S-BRT로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높아지면 원이대로 혼잡은 완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지방분권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건의문

2010년 7월 1일 첨단산업의 중심 창원, 민주성지 마산, 해양물류의 도시 진해가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정책 속에서 통합 창원시로 출범하였습니다. 주민투표나 사전 조율·논의도 없이 행안부의 주도 아래 10개월 만에 의회 의결만으로 진행된 통합이었습니다.

통합 이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2011년부터 매년 146억 원씩 10년 동안 통합시 재정 인센티브를 받아왔습니다.

재정 인센티브 만료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미래 통합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해 『지방분권법』 개정을 시도하였으나 20대 국회의 폐회로 폐기되었으며, 통합 10주년을 맞이한 2020년 또다시 재정 인센티브를 연장하는 『지방분권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통합시 재정 인센티브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마산과 진해를 배려하여 마산·진해·창원 3개 지역에 4:4:2로 차등 배분되었고, 도로개설, 공원 조성, 복지관 설립 등 균형발전과 도시기반 구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등에 투입되어 통합 후 지역격차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통합 10년이 지난 현재에도, 지역격차 해소라는 과제와 함께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여전히 남아있고, 지역민들은 완전히 융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합의 상징이었던 새 야구장은 위치와 명칭 선정 문제로 3개 지역에 커다란 분란이 있었고, 현재도 갈등의 골이 완전히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 10년간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발전 방향을 두고 노력해왔으나, 균형발전사업의 효과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과 불균형 해소에 소요되는 사회적 통합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재정 인센티브의 10년 연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온전한 통합을 위한 창원시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나, 이에 필요한 통합시 재정 인센티브 기한은 곧 만료됩니다. 통합 10주년, 화학적 통합을 완성하기 위하여 통합시 재정 인센티브 연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창원시가 지역 스스로의 도시경쟁력을 키우고 국가적인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통합시 재정 인센티브를 연장하는 『지방분권법』 일부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길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2020년 7월 16일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STX조선해양 정상화 지원 촉구 건의문

STX조선해양은 2018년 경영 정상화 자구책 이행을 위해 상여금 300% 및 통상임금 삭감, 500여명 6개월씩 순환 무급휴직, 사원아파트 등 독자 생존을 위한 고강도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금도 회생 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7.8일 시작한 이장섭 지회장의 무기한 단식이 일주일을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조선 경기 둔화로 인해 수년간 수주량이 줄어들었고,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해외 마케팅 활동이 제한되어 수주 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난 2년간 500여 명의 STX조선해양 근로자는 무급휴직의 고통을 참고 버텨왔으나, 수주량 감소로 인한 고정비 절감 자구안 제출 요구로 일자리를 잃게 될 처지에 놓여 있고 지역사회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카타르 LNG선 프로젝트 수주로 국내 조선사의 국제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다른 국가로부터 수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는 등 중소형 조선 및 기자재 업체도 수혜가 예상되어 국내 조선업계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버텨왔던 STX조선해양이 마지막 고비를 넘어 노사가 함께 공존하는 계속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해외 마케팅 활동이 제한되어 올해 수주하지 못한 사정을 감안하여 고정비 절감 자구안 제출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향후 원활한 수주활동 지원을 위해 수주 허가와 RG발급 및 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제작금융 및 신규자금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남도와 창원시의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자부담금 일부 지원 계획에 맞춰 순환 유급휴직 시행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16일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두산모트롤 매각 중단 촉구 건의문

두산그룹의 방만한 경영과 무분별한 차입경영으로 인해 자금의 유동성 위기로 그룹계열사 대부분을 매각해서 자금을 확보하지 않으면 총체적 부도위기와 더불어 그룹 해체의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여 이번 두산모트롤의 매각은 모트롤의 경영 상황과는 전혀 별개의 사유로 매각의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두산그룹은 지난 2008년 약 2천억 원으로 모트롤을 인수하였으며 지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공개된 경상이익만 3천5백억 원을 거두는 등 인수금액을 완전 회수하였습니다. 또한 두산모트롤의 현재 매각 예상금액이 5천억 원에 달하며,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매출 및 영업이익이 역대 최고에 이르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은 모트롤을 통해 기존 인수가보다 4배 이상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유출이 뻥한 중국자본에 매각하려고 하고 있으며, 수천억 원의 이익만을 바라보고 노동자 생존권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매각시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굴삭기 유압기기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두산모트롤의 해외자본 매각은 국내 유압기기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노동자의 구조조정을 동반할 것입니다.

이러한 매각은 오로지 두산그룹 오너가의 이익만을 보장하게 됩니다.

산업은행은 두산그룹의 자구계획안을 근거로 3조6천 억원의 공적자금을 두산에 지원했지만 두산은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적자금을 받고도 해외자본에 기술력이 있는 기업을 무분별하게 매각하여 이익만을 취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외자본으로의 매각일 경우 민수·방산 사업 부문을 나눠야 하는 법에 따라 나눠 매각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업장 내 노동자들의 구조조정을 동반할 것입니다.

노사협의 없는 일방적인 매각 결정이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는 것과 당사자인 노동자가 매각추진 과정에 참여하는 등 투명한 절차에 따라 매각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내 토종기업인 두산모트롤의 매각에 대해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총고용 보장을 포함한 노동조합·단체협약 등의 완전한 승계와 더불어 지난 12년간 부당노동행위, 노조탄압과 노조차별 등으로 노동조합이 제기한 민·형사상 각종 소송 등이 정리되어야 한다

하나, 유압기기 핵심 기술 유출하는 중국 등 해외매각, 노사 협의 없는 일방 매각과 고용과 생존권 위협하는 매각을 중단해야 한다.

하나, 산업통상자원부는 민수·방산 분리 매각 승인을 중단해야 한다.

하나, 향후 매각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각 전 과정을 공개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라.

2020년 7월 23일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대구~창원 철도물류망(창원산업선) 구축 대정부 건의문

창원시는 창원국가산업단지, 마산자유무역지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그리고 관내 1만 2천개의 기업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끌어가고 있으며, 부산·울산과 더불어 동남경제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남의 중심도시이다.

또한,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2019~2020)」을 통해 부산항 제2신항(진해신항)이 현재의 2.5배 규모로 진해구 제덕만에 확장·조성하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창원시는 동북아 해양물류의 거점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정부는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5)」에 서대구역과 대구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대구산업선을 계획하였고, 작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아 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 사업과 연계하여 창원까지 연장한다면 대구국가산업단지-창원국가산업단지-부산항신항까지 연결되는 철도물류망이 구축되어 물류수송의 경쟁력이 향상될 뿐 만 아니라 신항에서 유라시아까지 뻗어갈 수 있는 철도망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하다.

현재 창원과 대구를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주변에는 25개의 크고 작은 산업단지가 집적되어 화물차가 전체 교통량의 54.2%를 차지하고 있으며, 통행량도 매년 7.1%씩 증가하여 상시적인 지·정체가 발생하는 등 도로교통 중심의 물류수송은 한계에 와 있다.

또한, 광역권을 연결하는 철도망은 수도권에만 편중되어 지방도시와 경제·산업측면의 불균형이 심화될 뿐 만 아니라 우수 인력이 지방 근무를 기피하는 등 수도권과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도로교통 중심의 물류수송 한계에서 벗어나 철도 중심의 물류수송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영남권의 광역철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창원산업선 철도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

대구-창원 철도물류축 형성은 부산항신항의 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고 항만과 국가산단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국가기간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뿐 만 아니라 유라시아 철도망 네트워크의 시작점으로서 역할이 가능해 질 것이다.

또한, 영남권을 순환하는 광역철도망이 완성됨으로써 1,300만 영남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인적·물적 자원의 원활한 이동이 가능하며, 영남권이 수도권에 버금가는 초광역 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해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국가기간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영남권 초광역 경제공동체 형성을 가능하게 할 창원산업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20년 9월 15일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촉구 건의문

경제자유구역 내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기초자치단체에 이관함으로써 지자체에 과도한 비용 부담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경제자유구역법의 개정을 촉구함.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 기반시설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에 의해 개발사업시행자 등이 설치하고 있으며, 해당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도록 법령상 규정하고 있음.

경제자유구역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 의해 조성되는 기반시설에 관한 유지·관리 업무를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기초자치단체는 본연의 행정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예산 부족에 따른 부실한 시설물 관리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은 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조항에 경제자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시·도지사가 직접 수행하는 사무에 대해 규정함.

당초 법률 제정 시에는 기반시설관리 업무가 이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1년과 2015년 두 차례의 법령 개정을 통해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업무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음.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기반시설물을 설치하고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법령 개정에 따라 현재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여 창원시가 매년 약 4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특히 석동~소사 간 도로에 포함된 6.1km에 달하는 장대터널이 곧 완료되어 창원시로 이관될 경우, 유지·관리 비용은 약 25억 원이 추가되어 총 65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현재 기반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진해구(안전건설과)의 기반시설관리 예산 95억 원 중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은 약 65억 가량으로 전체 예산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여 지자체 고유의 정상적인 기반시설 유지·관리 업무가 불가능한 실정임.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자유구역 내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하도록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야 함.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신항만 개발에 따른 이관 시설 중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관된 소사~녹산 도로, 석동~소사 도로는 창원시 도시계획 시설로 되어 있어 이를 국도 대체 우회 도로로 변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설치되는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은 국가, 시·도가 지원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기반시설 유지·관리 비용 지원 조항을 경제자유구역법에 추가할 것을 강력히 건의함.

2020년 9월 15일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국비 반영 국회 건의문

우리 창원시의회는 정부가 무시한 동남권 대중교통 혁신을 위한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예산 255억 원을 미반영 한 것을 국회가 2021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한다!

경남도와 부산시가 요청한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관련 총사업비 255억 예산을 중앙정부는 2021년 정부 예산안에 단 1원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부산·울산·경남에 이르는 800만 인구의 '제2 수도권' 동남권 메가시티의 첫 구상인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도입을 가로막아 국토균형발전과 이들 지역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저해하는 국토교통부의 술책이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예산 중 철도예산이 반영되는 교통예산 특별회계 21조 3,607억의 0.1%조차되지 않는 255억을 요구한 것이 경남과 부산의 죄인가?

국회는 동남권이 하나된 생활권과 경제권을 가지는 '제2의 수도권'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예산 255억을 반영해야 한다.

21조3,607억이 담기는 교통예산특별회계란 주머니에 255억을 추가로 담아 달라는 것은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부전~마산 복선전철 개통 시기보다 더 늦어져 전동열차 편성 시기에 맞는 적기를 놓친다. 우리 창원시의회는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2020년 9월 24일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스타필드 교통대란의 실효성 있는 대책 촉구 결의문

신세계프라퍼티(이하 신세계)는 창원시 중동에 지상 7층, 지하 8층, 연면적 325,618㎡ (축구장 40개) 규모의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5월 29일 신세계가 제출한 스타필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조건부 가결했습니다. 창원시민들은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교통대란을 해결할 최적의 대책을 모색하기를 희망했지만 가결된 교통영향평가는 시민의 기대와 눈높이, 상식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수요예측을 창원 및 경남 일부 지역에 국한하여 창원시와 인접해 있는 부산광역시(340만 명), 대구광역시(240만)의 수요를 반영하지 않음으로서 수요예측이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축소된 수요예측에 근거한 교통영향평가와 개선대책은 필연코 미흡하고 부실할 수밖에 없으며 교통대란을 불러오는 주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요예측에 실패하여 개점 이후 극심한 교통대란과 혼잡을 불러왔고 지금까지도 교통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몸살을 앓고 있는 경기도 하남, 고양의 스타필드,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을 교통영향평가의 기초로 삼았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성이 있습니다. 경기도 하남, 고양은 스타필드가 도시의 외곽 부도심에 입점하였다는 점에서 원도심의 한가운데 입점하는 창원스타필드와 단순 비교할 수 없으며 창원스타필드의 교통대란은 예측과 상상을 초월하여 훨씬 심각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창원스타필드를 둘러싸고 있는 원이대로, 의창대로, 창원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대란(혼잡)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거의 전무합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관련부서/기관, 심의의원들이 간선도로 및 교차로의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입체교차로를 제안하였지만 신세계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창원스타필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도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원이대로(가음정~도계광장)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S-BRT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간선도로입니다. 원이대로는 편도 3차로인데 1차선이 S-BRT 전용도로가 될 경우 2차로 만으로 스타필드로 진입하는 차량과 원이대로를 통과하는 차량을 소화해야 하므로 극심한 정체와 혼잡을 빚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번 교통영향평가에서 창원스타필드와 사업(준공) 시기가 일치하는 S-BRT가 검토되고 그 대책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세계의 교통영향평가와 개선대책은 스타필드 입점으로 인해 야기되는 교통대란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신세계가 예견되는 교통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보다 기업의 부담(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 아닌지 깊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타필드 준공 이후 교통대란이 야기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창원시민들이 겪게 될 뿐 아니라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 또한 창원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신세계가 다음과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힘차게 결의합니다.

첫째, 창원스타필드는 3,596대의 주차 대수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는 경기도 하남, 고양의 경우에서도 교통영향평가에서 계획된 주차장은 개점 이후 실제 주차수요를 감당하지 못하여 교통대란을 야기하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며 개점을 앞두고 있는 스타필드 안성(연면적이 24만㎡밖에 안됨) 경우 5,000대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신세계는 예상되는 교통대란을 해결할 대책의 일환으로 주차장을 추가로 확충하는 계획을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교통대란(혼잡)에 있어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는 스타필드를 진입하지 않고 통과하는 차량의 소통을 얼마나 원활하게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신세계 측은 주요 교차로의 입체화 및 도로 확장(개설) 등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교통대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계획되어 있는 지하주차장의 주차회전율을 최대한으로 높여야 하는데 스타필드 내에 장시간 체류할 수 있는 시설이 많으면 주차회전율이 악화되어 심각한 주차난(부족)이 야기될 것입니다. 시설내의 주차난(부족)은 주변 가로의 교통대란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건축계획 시 장시간 체류하는 시설을 축소하는 등 주차난(부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0년 9월 24일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의회운영위원회



제96회 7월 1일 창원시의회(임시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영명)는 부위원장으로 구점득 의원을 선임했고, 위원으로 김상찬, 김상현, 심영석, 이종화, 이현순, 정길상 의원을 선임했다.

제96회 7월 6일 창원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9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7.16.~7.23. (8일간) 개최하기로 했다.



제97회 7월 22일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으로부터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받고 조영명 의회운영위원장은 업무에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97회 9월 9일 창원시의회(임시회)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9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9.15.~ 9.24.(10일간) 개최하기로 했다.



제98회 9월 21일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영명)에서는 “제2회 창원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창원시의회 시민참여토론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안”을 심사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제96회 7월 1일 창원시의회(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백태현)는 부위원장으로 김상찬 의원을, 위원으로는 김종대, 김순식, 박성원, 공창섭, 조영명, 정순욱, 박남용, 이우완 의원을 선임했다.



제97회 창원시의회(임시회)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는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여좌지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사업 등 사업장 8개소를 방문했다.



9월 11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개최된 소통간담회에서 창원경륜공단 현안사항 보고와 함께 제9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조례안에 대해 사전 설명을 듣고, 쟁점 사안에 대해 집행부와 논의했다.



9월 21일 창원경륜공단을 방문해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견학하는 등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9월 11일 창원경륜공단 현안사항 업무 보고회에 이은 현장 방문으로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책 및 사업다각화 등 경영 정상화 방안 논의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96회 7월 1일 창원시의회(임시회)에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위원장 문순규)는 부위원장으로 이현순 의원을 선임했고, 위원으로는 김경희, 김상현, 김인길, 박선애, 임해진, 전병호, 최영희, 최은하, 최희정 의원을 선임했다.



제 97 회 7 월 21 일 임시회 기간 중 경제복지여성위원회는 조례안 심사 및 현안사업 검토를 위해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먼저, 진해중앙시장을 방문하여 상권 활성화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그간 추진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창원아이세상 장난감도서관과 여성회관 진해관 등을 방문하여 운영현황과 애로사항을 듣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98회 9월 15일부터 10일간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부서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창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9개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또한 창원복지재단,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의 추진상황과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의 조례 개정 후속 대처 상황에 대한 현안업무를 보고 받았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96회 7월 1일 창원시의회(임시회)에서 문화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춘덕)는 부위원장으로 정길상 의원을, 위원으로는 김우겸, 노창섭, 박현재, 이종화, 이찬호, 이해련, 지상록, 진상락, 한은정 의원을 선임했다.



제97회 문화환경위원회는 4일 동안 소관부서의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받았다. 회의에서는 △마산 국화축제 고정된 장소 개최 검토 △이순신타워 건립 졸속 추진 반대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창원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 요청 등이 논의됐다. 특히, 창원시민들의 안정적인 수도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사업소의 선제적 대응을 요청했다.



지난 8월 11일 문화환경도시위원회는 상수도사업소 정수장 3곳(석동·대산·칠서정수장)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타 지자체의 수도물 유출 발생과 관련하여 정수장 여과시설 점검, 창원시의 민원 현황 파악 및 대응책 논의, 하절기 녹조 발생 대비 현장 점검으로 이뤄졌다. 위원들은 낙동강 원수 수질 개선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제98회 임시회 기간 중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충무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위원들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창원시민의 독특한 문화를 반영하고,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을 해당 부서에 요청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96회 7월 1일 창원시의회(임시회)에서 경제복지 여성위원회(위원장 문순규)는 부위원장으로 이현순 의원을 선임했고, 위원으로는 김경희, 김상현, 김인길, 박선애, 임해진, 전병호, 최영희 최은하, 최희정 의원을 선임했다.



제97회 7월 22일 임시회 기간 중 진해해양공원, 명동 마리나항만, 마산해양신도시 등의 주요사업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당시 현장 방문은 제3대 창원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주요 현안사업의 현장을 살피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제98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해양농림위원회는 안전건설교통국을 비롯한 소관부서의 2020년 제2회 추경 예비심사를 실시했고 '창원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증진 조례안', '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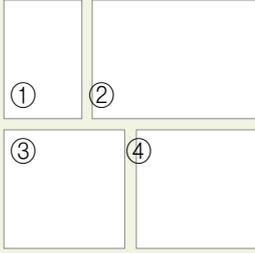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창원시의회(의장 이치우)는 제9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산회 후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에서 예결특위 위원장에 김장하(동읍·북면·대산면·의창동,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권성현(동읍·북면·대산면·의창동,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예결특위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구점득(의회운영위), 김순식, 이우완(기획행정위), 김경희, 박선애(경제복지여성위), 김우겸, 이해련(문화환경도시위), 권성현, 김장하(건설해양농림위)의원 등 9명을 예결위원으로 선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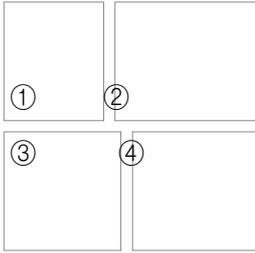
김장하 위원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예결특위 위원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 경 희 의원 (반송·중앙·웅남동)

- ① 제97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했다.
- ② 2020년 상반기 의정연찬회 중 지방의회 관련 강의를 듣고 있다.
- ③~④ 제98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소관부서의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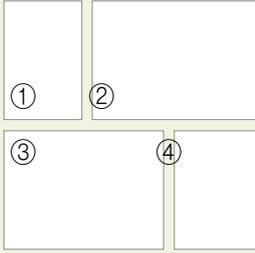




이 찬 호 의원 (반송·중앙·웅남동)

- ① 제97회 임시회 중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다.
- ② 2020년 상반기 의정연찬회 시작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 ③ 제98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을 예비 심사했다.
- ④ 10월 14일 국회도서관에서 지방의정부문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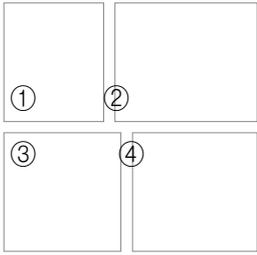




김경수 의원 (상남·사파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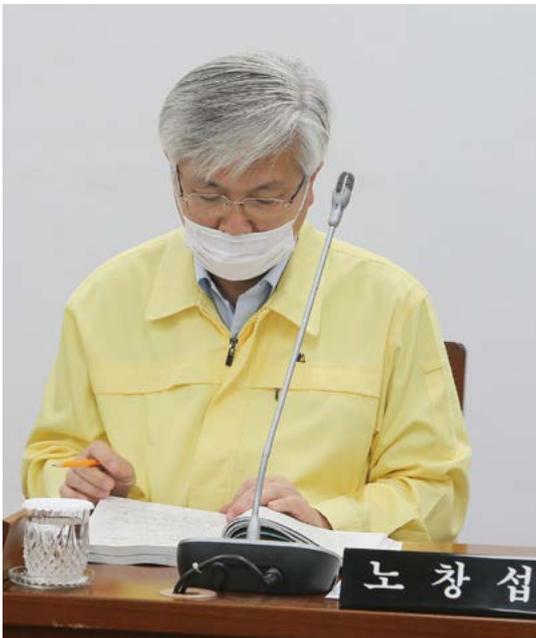
- ① 제95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중에서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 확대에 따른 관련 조례 필요성』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 ② 7월 10일 김경수 의원은 토월초등학교 학생 10여명을 초대하여 시의회의 역할과 본회의장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 ③ 9월 24일 창원시의원 연구단체인 「도시발전 연구회」는 김경수 의원을 대표로 선임했다.
- ④ 제98회 임시회 기간 중 2020년 제2회 추경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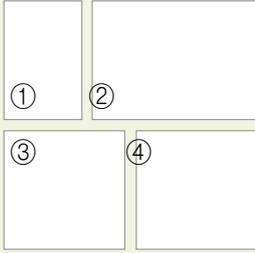




노창섭 의원 (상남·사파동)

- ① 제97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부서의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있다.
- ② 제97회 제2차 본회의 중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동의안」을 발의했다.
- ③ 제98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있다.
- ④ 2020년 상반기 의정연찬회에 참석해 강의를 듣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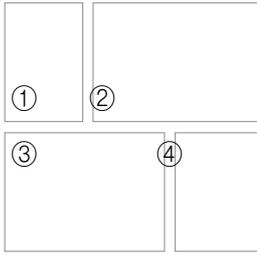




한은정 의원 (상남·사파동)

- ① 제97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부서의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있다.
- ② 2020년 상반기 의정연찬회 중 지방의회 관련 강의를 듣고 있다.
- ③ 7월 30일 사파동 창원축구센터 개관식에 참석했다.
- ④ 제98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부서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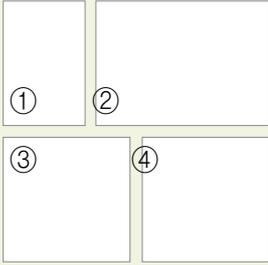




박남용 의원 (가음정·성주동)

- ① 7월 20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소관부서의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 ② 9월 17일 제98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제2회 기금변경안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 ③ 8월 21일 「도시발전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했다.
- ④ 제98회 제1차 본회의 중 「무분별한 도로시설물은 최소화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을 수립하자」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백승규 의원 (가음정·성주동)

- ① 제98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부서의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있다.
- ② 2020년 상반기 의정연찬회에서 강의를 듣고 있다.
- ③ 제9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민고개길, 공휴일은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자』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 ④ 지난 8월 12일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성산구 성남경로당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발한 연구활동



도시발전 연구회(대표의원 김경수)는 9월 22일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정재욱 명예교수를 초청해 ‘지속가능한 메가시티 창원건설을 위한 현안과 과제’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다. 이번 강연에서는 도시의 성장·발전의 주요 동력원으로 인구를 꼽았고, 창원지역사회의 인구감소 패턴은 경제문제와 분리하기 어렵기에 제3자적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도시발전 연구회는 통합 창원시의 발전방향 모색과 5개 구청간 균형발전 및 상생발전을 위해 구성된 의원연구단체로서 김경수 대표를 비롯해 김순식, 박남용, 정순욱, 김경희, 임해진, 전병호, 박춘덕, 박현재, 이천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발전 연구회(대표의원 김경수)는 9월 22일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정재욱 명예교수를 초청해 ‘지속가능한 메가시티 창원건설을 위한 현안과 과제’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다. 이번 강연에서는 도시의 성장·발전의 주요 동력원으로 인구를 꼽았고, 창원지역사회의 인구감소 패턴은 경제문제와 분리하기 어렵기에 제3자적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도시발전 연구회는 통합 창원시의 발전방향 모색과 5개 구청간 균형발전 및 상생발전을 위해 구성된 의원연구단체로서 김경수 대표를 비롯해 김순식, 박남용, 정순욱, 김경희, 임해진, 전병호, 박춘덕, 박현재, 이천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8월 19일 창원시 역사·문화 연구회(대표의원 공창섭)는 ‘창원시 관내 가야 유적 조사 및 발굴 유적 활용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진들의 5개월 연구기간 동안 창원의 가야유적에 대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수행 결과를 종합한 최종보고였으며, 이날 논의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했다. 공창섭 대표 의원은 “이후 용역결과 개선이 필요한 현장을 답사하는 등 적극적인 연구 활동을 이끌어 창원의 역사·문화정책에 도움이 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역사·문화 연구회는 창원시 역사와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창원시 역사와 문화 정책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의원연구단체로서 공창섭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종대, 박성원, 김인길, 최희정, 노창섭, 이해련, 심영석, 전홍표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8월 10일 관광·축제마케팅 연구회(대표의원 권성현)는 간담회를 열어 연구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비교견학을 포함한 활동 세부계획과 하반기 연구용역 과제를 선정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권성현 의원이 신임대표로 선임되었으며 “연구단체 구성원 간 소통과 화합과 창원시의 관광·축제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등 관광·축제마케팅 연구회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광·축제마케팅 연구회는 관광 및 축제에 대한 마케팅분석 (SWOT)을 통한 방향을 제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구성된 의원연구 단체로서 권성현 대표의원을 비롯해 조영명, 백태현, 김상찬, 김상현, 이찬호, 정길상, 진상락, 김장하, 백승규, 손태화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8월 10일 관광·축제마케팅 연구회(대표의원 권성현)는 간담회를 열어 연구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비교견학을 포함한 활동 세부계획과 하반기 연구용역 과제를 선정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권성현 의원이 신임대표로 선임되었으며 “연구단체 구성원 간 소통과 화합과 창원시의 관광·축제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등 관광·축제마케팅 연구회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광·축제마케팅 연구회는 관광 및 축제에 대한 마케팅분석 (SWOT)을 통한 방향을 제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구성된 의원연구 단체로서 권성현 대표의원을 비롯해 조영명, 백태현, 김상찬, 김상현, 이찬호, 정길상, 진상락, 김장하, 백승규, 손태화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7월 23일 여성·청년의원 시정연구회(대표의원 김우겸)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여성과 청년의 정책에 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활동 추진 방향을 재점검하고 세부사항을 논의하며 다음 활동 일정을 조율했다. 김우겸 대표 의원은 “지속적인 간담회와 비교견학·특강 등을 통해 창원시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연구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여성·청년의원 시정 연구회는 여성과 청년의 관점에서 창원 시정을 바라보고 정책을 평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된 의원 연구단체로 김우겸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우완, 이현순, 박선애, 최영희, 최은하, 이종화, 지상록, 한은정, 구점득 의원이 현안 사업을 연구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등 활발히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7. 1. 제9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개최

창원시의회는 7월 1일 1일간의 일정으로 제9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를 진행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0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7. 1. 하반기 의장단 총헌탑 참배

제3대 하반기 의장단은 1일 총헌탑 참배를 시작으로 하반기 2년 임기의 첫 공식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참배에는 이치우 의장을 비롯해 노창섭 부의장, 조영명 의회운영위원장, 백태현 기획행정위원장, 문순규 경제복지여성위원장, 박춘덕 문화환경도시위원장, 이천수 건설해양농림위원장 등 하반기 의장단 전원이 참석했다.



7. 1. 통합10주년 타임캡슐 행사 참석

7월 1일 통합 창원시 출범 10년을 맞아 이치우 의장은 시민 대표들과 함께 시청 로비에서 열린 기억상자(타임캡슐) 설치 행사에 참여했다.

7. 1. 제10회 창원시민의 날 행사 참석

7월 1일 제10회 창원시민의 날 기념식이 창원시청 광장에서 열렸다. 이치우 의장은 기념식에서 “창원시는 통합시를 뛰어 넘어 특례시 실현이라는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며 “창원시의회도 시민을 위한 봉사자의 마음을 깊이 새기고 새로운 창원 대도약 대혁신을 이루기 위해 창원시와 머리를 맞대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7. 7. 7월 의장단 집행부 간담회 개최

창원시의회는 7월 7일 오전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후 첫 의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제97회 임시회 일정과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등에 대해 논의했다.

7. 10. 자은민원센터 개소식 참석

7월 10일 자은민원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이치우 의장은 “최근 자은동은 대규모 아파트가 조성되면서 인구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복지수요도 증가했다”면서 “자은민원센터가 주민의 소통과 화합을 이루는 구심점 역할을 하며 주민의 행복충전소로 발전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7. 8. 초록우산 아동의원 의회 방문

7월 8일 「초록우산 아동의회」 아동의원이 창원시의회를 견학했다. 아동의원 25명은 전홍표 시의원의 안내로 본 회의장을 둘러보았으며 일일 시의원이 되어보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지난 4월 1일 창원시의회와 초록우산은 「초록우산 아동의회」는 협약식을 맺어 지역아동들에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알리고 직접 의회 활동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7. 16. 제9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개회

7월 16일, 제3대 창원시의회 하반기 의회 출범을 기념하여 ‘창원시민에게 드리는 메시지’ 피켓 퍼포먼스를 했다. 이어 창원시의회는 본격적인 하반기 의정 활동에 돌입했으며, 이치우 의장은 “제3대 창원시의회 하반기 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전 의원이 합심하여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7. 17. STX시위 현장 방문

이치우 의장은 7월 17일 경남도청 정문 앞 STX조선해양 천막 농성장을 찾아 단식 농성 중인 노조원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창원시의회는 지난 16일 제97회 제 1차 본 회의에서 STX조선해양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제작금융 및 신규자금 지원, 순환 유급휴직 시행 등을 요청한 ‘STX조선해양 정상화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7. 21. 도시침수 예방사업 준공식 참석

7월 21일 봉암동에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준공식이 열렸다. 준공식에 참여한 노창섭 부의장은 “양덕 봉암 일원은 상습침수피해지역으로 집중 호우 시 시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사업으로 관로 및 빗물펌프장이 개선되어, 침수 때마다 시민들이 겪어야 했던 교통·생활 등에서의 어려움이 말끔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7. 23. 창원시의회 ‘윤리강령·청렴 실천’ 결의대회 개최

창원시의회(의장 이치우)는 7월 23일, 의회 본 회의장에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창원시의회 구현을 위한 ‘윤리강령·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창원시의회원으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시민에게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직무수행 시 의원 품위 유지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 ▲직무와 관련한 부당이득 도모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의 숭선수범 등을 결의하며 올바르게 투명한 의정 활동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7. 30. 의장단 긴급 간담회 개최

7월 30일 의장실에서 시내버스 6개사 파업과 관련하여 해결책 모색을 위한 긴급의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의회 의장단은 시 집행기관으로부터 △파업 쟁점 △시내버스 비상수송대책 △노사 협상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집행부와 주요 해법에 대하여 논의했다.





7. 30. 창원축구센터 체육관 개관식 참석

7월 30일 창원축구센터 체육관 개관식이 열렸다. 이치우 의장은 “창원축구센터 개관식은 배드민턴장과 탁구장, 농구장 등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시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시설”이라며 “창원시의회도 살기좋은 창원, 시민이 행복한 창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8. 3. 창원시의회 기자회견 개최

8월 3일 오전 창원시의회는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시내버스 파업 사태의 즉각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시와 버스사, 노조측에 시민들의 불편을 불모로 한 명분없는 파업 중단과, 버스의 정상 운영을 촉구했다. 이치우 의장은 “시민들의 지지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는 파업에 시의회도 사태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해결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8. 10. 코로나 확진자 방문업소 이용

8월 10일 이치우 의장을 포함한 의장단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의창구 소재 한 식당을 찾았다. 이치우 의장은 “창원시의회는 완벽한 방역은 물론,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집행부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8. 10. 태풍 '장미' 대비 팔용펌프장 방문

8월 10일, 이치우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은 제5호 태풍 장미의 북상에 대비하여 집중호우 피해 예방 시설물인 팔용 배수펌프장을 방문했다. 의장단은 펌프장 관리 상태 전반을 살피고, 유사시 적기에 펌프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상시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가동상태 등에 대해 수시로 확인 점검을 실시해 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요청했다.





8. 12. 제222회 경남시·군회의의장협의회 정례회 참석

경남시·군회의의장협의회는 8월 12일 사천시에서 제222회 정례회를 갖고 이삼수 사천시의회의 의장을 제8대 후반기 회장으로 추대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국토균형 발전과 사천 항공MRO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공사법 개정 반대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고 대통령 비서실과 국회의장 등 관련 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8. 15. 광복절 기념 타종식 참석

8월 15일 낮 12시 창원대종각에서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는 창원대종 타종행사를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치우 의장을 비롯해 김학성 광복회 창원연합지회장, 국회의원, 도·시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및 지난 8월 2일까지 공개 모집을 통해 최종 선발된 시민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8. 26. 용원2동 배수펌프장 개선사업 시찰

8월 26일, 이치우 의장과 의원들이 제8호 태풍 '바비'가 북상함에 따라 강풍과 호우를 대비하여 지역구 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시의원들은 강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역구 내 침수 우려 지역 및 재해취약지를 둘러보고 수방대책과 피해 예방시설 등을 점검했다.

9. 1. 마산구항 배수펌프장 방문

9월 1일, 이치우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은 태풍 '마이삭' 복상에 대비, 침수위험지역을 방문했다. 의장단은 마산서항 제1 펌프장과 마산구항의 펌프장을 방문, 침수 위험지역과 시설물을 직접 점검하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사항과 대처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9. 1. 창원시청 재난상황실 방문

창원시의회는 시청내 코로나19 대응 종합상황실을 찾아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치우 의장은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올해 초부터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소강상태를 보이던 확진자 수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걱정스럽다”며 “시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이 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9. 2. 태풍 '마이삭' 대비 농·어촌 예찰

9월 2일, 이치우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이 태풍 복상에 대비하여 농·어촌 피해우려지역을 예찰했다. 의장단은 제9호 태풍 '마이삭'의 북상으로 창원 전역에 많은 비와 강한 바람에 철저한 사전대비가 요구됨에 따라, 진전면, 진동면, 북면, 대산면, 동읍 등 농·어촌 지역을 순회하며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사항 및 대처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9. 11. stay strong 캠페인 동참

이치우 의장은 코로나19 극복과 조기 종식을 응원하는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치우 의장은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며, 창원시의회도 코로나19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스테이스트로 캠페인은 코로나19 극복 연대 메시지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자 2020년 3월 외교부가 시작했다.

9. 11. 의회 갤러리 트락 전시

창원시의회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갤러리 트락에서 경남문인화협회장인 차일수 작가의 문인화 작품 10점을 전시했다. 갤러리 트락은 창원시의회 빈 공간을 활용해 의회를 찾는 시민에게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정서적 공감을 위해 마련된 감성 프로젝트로, 지난해 5월 시의원들의 소장품과 작품 전시를 시작으로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꾸준히 전시해오고 있다.



9.11. '사진으로 보는 창원시의회 10년사' 발간



창원시의회는 9월 11일 통합 시의회 10년 역사를 생생하게 담은 사진첩 「사진으로 보는 창원시의회 10년사」를 발간했다. 이 사진첩은 통합 창원시의회 10주년을 맞아 총 280쪽 분량으로 발행됐으며, 통합 1대에서 3대 전반기까지 의정 활동, 10년간 변화된 의회 한눈에 보기, 10년간 이슈 모아보기 등 시기별, 주제별로 묶어 생생한 사진으로 담아냈다. 이 사진첩은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립 도서관 등에 배부됐다.

9.23. 추석맞이 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창원시의회는 9월 23일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장애인 복지시설과 아동보육시설 등에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치우 의장과 지역구 의원들은 진해구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인 '하늘정원'을 시작으로 창원 시내 6곳의 복지시설을 방문했다.

시민극장, 시민에게 돌려줘야...

박성원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한때 전국 경제 7대 도시로서 부흥했던 마산은 한 세기에 걸쳐 전국적인 규모로 극장이 형성되면서, 마산극장에서부터 시민극장, 강남극장, 중앙극장, 제일극장, 동보극장, 동아극장, 피카다리극장, 태흥극장, 연흥극장, 3·15회관 등이 창동 부림시장 일원에 생겼다. 특히 나훈아 무명 시절에는 마산의 이들 극장에 출연한 나훈아를 보기 위해 인산인해를 이뤘다. 나훈아는 가까운 부산에 자택에 있어 시민극장에 초청가수로 자주 참여한 시민극장 단골 무명가수였다.

우리는 시민극장의 역사적 배경과 유산 가치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1907년 일제강점기 시절 마산시민들의 토론장이었던 공회당이라는 민의소가 마산부 석정(石町*현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에 개관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영화 상영 등 문화활동을 통해 지역 문화시설 중심 역할을 하게 됐다.

민의소가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된 후 마산구락부가 이를 이어받아 토론과 교육의 장으로 활용됐다. 1920년 6월 12일 마산 구락부는 발기총회를 가지게 되고, 1922년 6월 8일에 마산경찰서 주최의 위생 선전활동 영화를 마산 구락부 회관 광장에서 상영했다. 현재 건물주는 창원시 근대건조물 심의위원회를 신청한 상태이다. 단층 목조 건축 천정이 원형 그대로 잘 보존돼 있고, 스닥크(카시오) 목조건축물도 원형 그대로 잘 돼 있다.

시민극장은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 선생의 유년시절과의 각별한 인연이 있다. 넉넉지 않았던 가정환경 속에서 13~14세의 나이에 마산·진영 등지를 다니면서 시내 주요 영화 개봉관의 간판 그림을 그리면서 돈을 벌었다.

훗날 일본 유학을 떠난 문신 선생은 해방 후 고향으로 돌아와 계속 시민극장 및 경남 일대 일반 간판을 그려주는 일을 계속하지만 여러 경쟁사가 생기자 추산동 언덕으로 올라가 자신의 화가 활동에 전념하게 된다. 동시대의 정진업 시인은 마산상고를 다니면서 시민극장 내레이터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전해진다.

마산 르네상스 시절의 문화예술 부흥의 중심이었던 창동 일대가 불황을 맞으면서 지역의 문화예술시설 역시 문을 닫게 되고, 문화예술인들의 활동 공간 역시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지역 상권도 바닥을 치게 됐다. 2012년에서야 창동예술촌이 형성되면서 문화예술을 통한 상권 활성화와 원도심 재생을 모색하는 분위기가 재기되면서 문예공간들이 탄생되고 시민극장 복원 사업이 거론되고 추진되다 무산됐다.

한 시대의 역사적 흐름과 한국 문예부흥의 중심지였고, 민주정신문화의 성지인 마산 원도심의 핵심 문예공간이었던 시민극장의 부활이 절실하다며 최근에 지역 문예단체와 예술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관계 지자체 역시 지역 문예공간과 시설 확충에 고심하고 있다. 문신미술관 이 외에는 창작문화 시설과 활동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미술관이나 갤러리들이 들어서고, 어디 갈 수도 없는 예총회관 같은 민간 예술인 공간들이 들어서야 하는 형편에 시민극장 복원 사업은 가뭄 속에 단비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창원 시내버스 희망한다



박 남 용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시내버스로 출퇴근은 물론, 지역구 일정과 업무 등 매일 버스를 이용한다. 신용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함께하면 할인과 소득공제 혜택도 있으므로 창원 시내버스에 대해 많은 사랑과 적극적인 이용을 기대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2004년 7월 도입하였으며 2007년 옛 마산시만 도입하였다가 2010년 통합 창원시 출범 후 폐지된 바 있다. 그리고 지금 창원형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준공영제가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기 위해서는 버스업체 적자를 무조건 보전해 주는 돈 먹는 하마 식이 아닌 투명한 재정 집행과 시민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 창원 시내 전체 버스의 수가 700대에 근접하고 재정지원금 규모는 버스 한 대당 1억 원, 약 700억 원이다. 과연 민간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미 준공영제 수준의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본다. 수익을 염두에 두고 책임 경영을 할 필요도 있다.

버스 내 공공 와이파이, 손 세정제, 노선안내도, 정류장 정비, 환승요금 지원, 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버스 구입 보조금 지원, 공영 차고지 지원, 기타 엄청난 재정 지원 등 이루 말할 수 없다.

가족이나 친·인척으로 구성된 경영진과 이윤의 과도한 배당, 시민 정서에 맞지 않는 임원의 급여 등에 대한 오해의 부분도 개선이 시급하다. 버스회사의 적정 이윤은 보장하되, 경쟁을 촉발하는 의미에서 성과 이윤방식을 확대하는 것도 제안한다. 다시 말하면 배차 정시성, 안전성, 운행 만족도, 각종 안전운행 위반 등을 기준으로 평가가 좋은 업체는 유인책을 주고 평가가 낮은 업체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여 불편한 민원이 반복 지속되면 완전히 퇴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창원시가 버스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완전 공영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버스 면허의 기간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일반면허로 운영되므로 특허 권으로 인식되고 있다. 면허가 특허 개념으로 인정된 것은 예전에는 민간업체가 차고지 운영, 버스 구입, 정류장 설치까지 하였기 때문에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었지만 지금 창원시는 차고지 제공, 버스 구입 보조금 지급, 정류장 및 운행시스템 개선, 적자 노선 보전 등으로 엄청난 보조금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면허권을 조정하고 버스 노선 면허도 버스회사 또는 시내버스협의회에 부여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인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버스업체들은 무료 환승으로 말미암아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행정은 무료 환승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무료 환승으로 말미암아 시내버스가 살아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나마 시내버

스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시민들이 만족하는 부분은 환승 시스템이다. 따라서 버스회사의 영업을 확대하기 위한 마케팅 비용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시민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대중교통의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신교통추진단에서 의욕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버스 관련 회계전문가, 노선전문가의 역할을 기대하고 부서에서 다년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반가운 소식에 박수를 보내며 제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창원 시내버스를 간곡히 희망한다.



안민고개 루지와 곤돌라 설치하자



박춘덕 의원 | 문화환경도시위원장

안민고개는 장복산(長福山, 582.2m) 산허리에 있는 길이 약 9km의 고갯길로 진해 태백동과 성산 안민동을 이어준다. 전망대는 물론 고갯길 군데군데에서 진해만(灣)과 진해 전경이 내려다보이고, 웅산·시루봉·천자봉 등의 산줄기가 시원스럽게 펼쳐져 경치가 수려하다. 특히 일출·일몰 풍경과 야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며, 장복산과 시루봉의 등산 기점이다.

안민고개는 두 가지 전설이 있다. 첫째 안민고개라는 지명 유래담이다. 임진왜란 때 황장군이라는 명장이 이 고개를 잘 지켜 백성들이 살기가 편안해져 안민(安民)고개라 부르게 되었다. 둘째는 안민고개가 조선 시대 출가한 딸들이 추석 명절 이틀 후 창원이나 웅천에서 이곳으로 올라와 1년에 한 번 친정 가족을 만나 혈육의 정을 나누는 만날재 행사다.

국도 25호선인 안민고개 도로는 현재 장복터널과 안민터널 개통으로 드라이브 코스나 자전거와 등산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기능은 이미 상실했다. 필자는 창원 관광 개발의 하나로 안민 고갯길 태백동 4km와 안민동 3km 구간에 대해 곤돌라를 설치하고 1개 차로는 루지를 조성하고 또 하나의 차로는 자전거 전용 도로를 조성해 친환경 복합관광지로 개발하자는 제안을 창원시에 드린다.

창원시는 안민 고갯길을 이용해 자전거 스텐트(BMX), 스케이트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등 익스트림 스포츠 대회도 가능할 것이다.

강화 씨사이드 리조트는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루지 설비와 최고의 전망을 즐길 수 있는 곤돌라는 전망대까지 총 연장 700m 구간을 30기의 곤돌라로 운영하고 있다. 시간당 탑승객 2400명, 루지 썰매 1200대를 동시에 수송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유일한 시스템이다.

강화 루지는 연장 1.8km짜리 2라인으로 동양 최대 규모다. 국내 최장 루지는 청도 군파크 1.88km, 양산 에덴밸리 1.63km, 통영 1.5km, 평창 1.2km 수준이다.

창원시는 수려한 자연을 이용해 해안 경관을 활용한 안민고개 루지 설치사업을 추진한다면 세계 최고의 관광지로 탄생할 것이다.

이 사업은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것으로 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은 전무하다. 고갯길 하나로 정상부의 전망대, 등산로, 루지, 곤돌라, 도로용 자전거, 특히 안민 도로에서 대발령까지 임도는 왕복 24km에 달한다. 임도를 이용한 산악자전거는 루지 곤돌라와 연계할 수 있다. 한마디로 지형지물을 이용한 세계 최고의 친환경 복합 레저 스포츠 관광지로 탄생할 것이다.

안민 고갯길의 루지 도로에는 바닥조명과 벽면 조명을 설치하고 임도 12km 양측에는 일정 거리를 구간별로 지정해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으로 계절 꽃나뭇을 연속해서 조성한다면 사계절 꽃길 조성이 가능해 또 하나의 명물로 탄생할 것이다. 태백동과 안민동에 대형 주차장 설치로 일대의 경제적 활동은 증가할 것이다.



자연재해 그러나 보이지 않는 피해

지상록 의원 |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유례없는 긴 장마와 폭우, 거기에 태풍까지 겹쳐 대한민국이 난리다. 산사태와 홍수 등으로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곳곳에서 시민들의 피해 복구 및 생활 안정 지원책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피해로 고통받는 진해만의 어민들은 여전히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50일 넘게 이어진 긴 장마로 담수 유입이 많아지자 바닷물의 염분 농도는 떨어졌고 산소부족 물 덩어리, 이른바 '빈산소수괴'로 인한 양식 생물 집단 폐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갓 넣은 홍합 종패와 수확을 앞둔 홍합은 80%가 폐사했고 미더덕과 오만둥이는 수정란 자체가 생기지 않아 채모가 되지 않고 양성 중인 미더덕과 오만둥이 등이 수확 전에 폐사한 상황이다.

이로 말미암아 어민들 속은 그야말로 새카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현재까지 장마로 접수된 경남의 양식장 피해는 390건, 피해액은 44억 원으로 추정된다. 씨를 받으려고 기르는 '종패'까지 피해를 본 상태라 앞으로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피해를 보상해 줄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이 더욱 시름을 깊게 만든다. 현행법상 홍합 양식어장의 복구 지원 단가는 200m당 27만 5000원인데 이마저도 50%만 지원되다 보니 한 줄당 인건비, 종패 값을 산정한 최저 금액 150만 원에 비하면 13만 7500원의 지원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미더덕과 오만둥이는 지원 기준마저 없는 상황이었지만 다행히도 최근 창원시 수산과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만 원 정도로 지원 산정기준을 측정한 상태다.

기후변화, 이상고수온, 태풍, 올해는 이례적으로 긴 장마까지. 매년 이상 기후 현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어민 지원 현실화는 절실하다. 어민 지원 현실화를 위해서는 먼저 국가의 국비지원 금액을 상향해야 한다. 어업은 기준이 다른 분야에 비해 국비지원 금액이 현저히 작은 편이다.

두 번째는 국가 복구 지원 단가를 현실화해야 한다. 또한,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들도 찾아 기준을 잡아 나가야 한다.

세 번째, 홍합 특별계약 보험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개선도 시급히 요구된다. 재해보험은 사회보장적 성격의 정책보험인 만큼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수협과 함께 홍합 보험의 특약은 물론 양식장 생물에 대한 보험특약을 세밀하게 만들어 자부담률 조정과 보상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네 번째, 입식 신고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매년 장마, 태풍, 강풍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양식어업 분야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양식 수산물의 입식과 출하, 판매 신고를 하여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어민들은 입식, 출하 및 판매 신고는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꺼리고 있다. 그렇다 보니 제대로 된 피해 규모와 상황들이 증명되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매년 반복되는 바다 이상 현상의 피해, 고스란히 어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어업 현실에 맞는 조속한 제도 개선의 선행과 어업인들의 제도권 유입이 강력히 추진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우리 어민들도 이제는 제도권에 들어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우리 자손들이 함께 영위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너무 빨리 찾아온 코로나 2차 대유행



정순욱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이제는 우리에게 제법 익숙한 바이러스 '코로나19'. 코로나19는 단순하게 건강만을 해치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세계를 '팬데믹' 상황으로 몰아넣는 질병이다. 작지만 꿈을 가꾸어 주시던 우리 부모님을 실직으로 몰아넣고, 생계를 위해 높은 대출 이자로 가계부채를 쌓게도 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끔찍한 질병이다.

손님이 끊긴 가게에서 홀로 긴긴 시간을 견디면서도 식구 같은 종업원에게 휴직을 부탁하던 소상공장님도, 무더위와 싸우며 무료급식소 밖을 서성이던 부모님들도 다가올 미래를 꿈꾸며 힘들게 버티며 견뎌왔다.

코로나19를 치료할 백신이 없는 바이러스 공포. 나약한 인간에게는 극도의 무서운 재앙이었다. 자연적 재앙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대안은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손 씻기' 등 예방책이 고작일 뿐이다. 그래서 세계는 극복 방안을 찾으려 안간힘을 쏟으며, 부단한 노력을 다하는 시점에 있었는데, 인간의 무지한 탐욕이 재앙 속으로 휘몰아치게 만들어 버렸다.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 나라의 광복을 기념하는 그날. 일부 개신교회는 공적 지시도 배타하며 집회를 강행하여 결국 사회를 불신의 늪으로 몰아넣고, 대구에서 겪은 비극보다 더 무서울 수도 있는 너무나 큰 재앙의 씨앗을 뿌려 버렸다.

사회적 관점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무모한 도전이 안정을 찾아가는 우리 사회를 얼마나 큰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자만하던 자신들조차 코로나19에 노출되면서 또 다른 감염원이 된 상황에서 불신을 조장하고 사회를 긴장으로 몰아넣고 있다. 당신들이 숭배하는 종교에 '회개'라는 좋은 말씀처럼 자신들 행동을 돌이켜 보길 바란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지침을 부정하고 조롱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모든 국민이 따르고 준수하듯이 응하고 따라주길 바란다. 당신들이 지키려는 나라와 우리가 지키려는 나라 '대한민국'은 똑같은 것이다.

포기하고픈 아픔에서도 어렵게 삶을 간신히 지탱해 주시는 부모님과 미래를 꿈꾸며 노력하는 자녀를 생각하며 자신들의 올바르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회개하여야 한다. 모두가 '함께' 경험해 본 코로나19의 무서운 공포를 잘 알고 있듯이 '함께' 노력을 해야 극복할 수 있고 꿈도 가질 수 있다. 내일은 늦을 수도 있다. 지금 용기를 내어서 모두가 손잡고 함께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산 창동시민극장 시민의 품으로!

박성원 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한때 전국 7대 도시로서 부흥했던 마산에는 마산극장, 시민극장, 강남극장, 중앙극장, 제일극장, 동보극장, 동아극장, 피카다리극장, 태양극장, 연흥극장, 3·15회관들이 전국적인 규모의 극장가를 형성하며 창동 부림시장 일원에 들어서 있었다.

우리는 이 가운데 시민극장의 역사적 배경과 유산 가치를 알아 둘 필요가 있다.

1907년 일제강점기 시절 마산시민들의 토론장이었던 공회당이라는 ‘민의소’가 마산부 석정(石町·현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에 개관하면서 영화 상영 등 지역 문화 시설 중심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된 후 마산구락부가 이어받아 토론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이후 여러 번의 인수자를 거치며 마산시민들에게 여가문화의 즐거움을 주는 명소로 자리매김하였으나 1995년 7월 27일 <브레이크 하트>를 마지막으로 폐관하게 되었다.

시민극장은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 선생의 유년 시절과도 각별한 인연이 있다. 문신 선생은 넉넉지 않았던 가정환경 속에서 13~14세에 마산·진영 일대 등 시내 주요 영화 개봉관의 간판 그림을 그렸는데 1930년대 당시에는 문신 선생 같은 예술인 1세대들이 영화 간판을 그리며 생계를 꾸려 나갔다고 한다.

2012년, 창동예술촌이 형성되고 문화예술을 통한 상권 활성화와 원도심 재생을 모색하는 분위기가 피어 올라 창동에 문화 공간이 조금씩 들어서고 시민극장 복원까지 거론되었으나 결국 무산되었다. 최근 시민극장 부활이 절실하다는 문화예술 단체와 예술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신미술관 이외에는 창작문화 시설과 활동 환경이 열악한 창동에 시민극장 복원 사업은 가뭄 속 단비가 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역사 문화적 유산 가치를 간직한 시민극장이 복원되어 다시 창원시민의 문화명소로 자리매김 되길 기원한다.



디지털시대의 인권의식



박 선 애 의원 |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발 없는 말이 천 리(千里)를 간다”는 옛 속담이 있다.

말(言)은 비록 발이 없지만 달리는 말(馬), 특히 천리마처럼 순식간에 천 리 밖까지 퍼진다는 뜻으로 구전(口傳)의 영향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지금 우리는 자의든 타의든 옛날에는 상상조차 못한 디지털 문명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시공간(時空間)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디지털 시대! 바로 우리의 미래이고 현재이자 오늘이다.

특히 디지털모바일 시대는 필요시 대면(對面) 관계 외엔 말(言)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문자, 그림, 사진, 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개인의 정보, 또는 생활상들이 아주 짧은 시간에 천 리를 넘어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돈다.

어디 그 뿐인가? 그 개인이 이 세상을 떠난 사후(死後)에까지도 온라인 공간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다양한 정보와 함께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이 지구상 누구와도 소통하며 지인이 될 수 있는 시대인 것이다. 그러나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반면, 확대된 개방성과 집단성, 강화된 보안성들이 때로는 부정적으로 작용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중요한 개인 정보나 감추고 싶은 사생활이 내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거나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불법으로 유포되는 것들이다. 고의나 불법으로, 때로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재미로 별생각 없이 유포되는 영상이나 이미지들은 ‘텔레그램 N번 박사방 사건’ 같은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 형태로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트리기도 한다.

만년 적조차 없는 불특정인, 또는 사회 유명인들의 사생활,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들이 검증 과정 없이 SNS로 전파되고 때로는 이념이나 흑백논리로 그 아래 도배(塗褸) 되는 댓글들!

익명성의 특성으로 무자비한 악플들도 무분별하게 난무(亂舞)하고 있다.

이로 인해 누군가는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야 하거나 때로는 견디다 못해 소중한 생명을 버리기도 한다. 다른 시각으로 보면 편리한 만큼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세계가 한 순간에 들어오는 디지털 모바일 시대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소중한 우리의 인권(人權)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되돌아본다. 나 자신이 소중한 만큼 누군가도 소중한 존재라면 인간 존엄성에 대한 가치를 디지털 시대에서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SNS상의 지나친 막말성 비난이나 비판, 인신공격성 댓글들이 미워하고 싶은 특징인에 준할 때 묘한 카타르시스(catharsis)를 느끼게 하는 마력(魔力)이 있다 해도 적어도 문명인이자라면 적당한 수위와 수준을 지키는 것이 무한(無限)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며 새롭게 다져야 할 인권 의식이라고 생각한다.



부동산 정책, 대화를 통한 보완이 필요



김 경 희 의원 |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말죽거리에 땅을 사면 떼돈을 번다” 1966년 서울시가 영동개발 계획을 발표한 후, 말죽거리는 땅값이 폭등하기 시작했고 돈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후 70년대 ‘복부인’이 등장해서 무더기 청약으로 이익을 챙겼고, 90년대에는 이동식 중개업소인 ‘뺏다방’이 등장해서 분양권 전매와 청약통장 거래를 알선했다. 이제는 직장인, 대학생들까지 ‘갭투자’라는 허울 좋은 용어를 내세워 너도나도 투자를 빙자한 투기에 몰려들어 국가 경제를 어지럽히고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 7월, 계약갱신청구권(최소 4년, 최장 무기한까지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전월세 상한제(직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해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전월세 신고제를 골자로 하는 ‘임대차 3법’이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8월 11일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을 지지할 ‘부동산 3법’이라 불리는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부동산 정책들에 나라 전체가 혼란스럽다. 특히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서울 아파트 중저가 전세 거래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보도와 전세가 대거 월세로 전환될 것이며 4년 뒤에는 임대료가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 소급 적용으로 인해 당장 피해자가 될 위기에 놓인 선의의 임대인, 사적 재산권과 토지공개념의 충돌 등으로 여론이 들끓으며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여당은 강한 의지로 입법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했지만, 반대 여론을 보면 예전과는 달라진 여론의 추이를 파악하지 못했고, 공감을 얻을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다. 때로는 밀어붙이기식의 정치가 필요한 때도 있지만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와 합의를 통해 당겨와야 하지 않았냐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제 첫걸음이다. 지금이라도 국민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반대 의견을 경청하고, 간과한 부분이나 허점은 없는지 검토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응할 전략과 보완 정책을 마련해서 임차인의 보호와 투기세력의 근절이라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그땐 그랬었다고.....



이해련 의원 | 문화환경도시위원회

9월이 오면 가끔 하늘을 올려다본다.

높고 맑은 하늘, 바람 따라 흘러가는 새털구름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가을이 오고 있다고 속삭이는 듯하다. 색색의 옷으로 화려하게 단장한 가로수가 오가는 이들의 시선을 유혹할 시월의 풍경도 그려보며, 가을의 시작인 구월을 맞이한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익숙해져 계절의 변화와 주변의 소소한 일상을 더 이상 즐기지 못하고 외부와의 단절이라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

또한 유례없는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는 스스로 계획하지도 예측하지도 못하는 날들을 보내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는 우리 곁에 머물며 모두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다. 언제쯤이면 우리곁에서 사라질 것인가?

연일 코로나 종식을 향한 세계인의 간절한 바람들이 마스크를 통해 메아리처럼 들려오고 있다. 어려운 위기 상황 앞에서 결국, 인류는 국적이나 인종과 관계없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실감한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노력 또한 더욱 절실하다는 것도 깨닫게 된다.

사회의 구성원으로 열심히 살아온 수많은 시민들의 고충을 보며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하루빨리 코로나 이전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예전으로 돌아가는 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대부분의 예측이 불안감을 주기도 하지만,

어디선가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연구진에게 희망을 걸어보고 싶다.

우리도 함께 희망의 손을 보태야 할 때다. 철저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 준수 등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최근 유치원생들과 고등학생들의 코로나19 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은 어른들에게 잔잔한 감동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지금의 상황이 익숙하지 않겠지만 나와 너, 우리, 나만의 세상이 아닌 우리들의 세상을 위해, 우리 꼭 이겨내리라 믿는다.

먼 훗날 활짝 웃으며 말하리라! 2020년 그땐 그랬었다고...



창원 읍성의 성공적인 복원을 바라며



백태현 의원 | 기획행정위원장

경북 청도군 화양읍에 있는 청도읍성을 다녀왔다. 읍성을 본 순간 깜짝 놀랐다. 멋지게 복원된 읍성은 역사교육의 장으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의 쉼터가 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청도읍성은 조선 시대 읍성으로 고려 말에 토성으로 만들어져 임진왜란이 나기 전 대대적인 수축 작업을 거쳤다. 이후 일제강점기 때 성내 신작로를 개설한다는 명목으로 성문과 성벽을 헐면서 본래 모습을 잃게 되고 동쪽 성벽 일부만 1995년에 경상북도 기념물 제103호로 지정되어 보존 관리되고 있었다. 그러다가 2005년부터 최근까지 복원 정비 작업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물론 읍성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몇몇 부실 작업이 있었다든지 원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복원된 읍성 안팎으로 주민들이 살고 있고 또 그곳에서 읍성밧기 행사나 음악회 같은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들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니 부러운 마음이 절로 든다. 더구나 읍성 주변에 지역 문화자산을 활용한 상권도 형성돼, 시간이 갈수록 청도군의 자부심으로 대접받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우리 지역은 어떠한가?

창원 읍성은 1476년부터 쌓기 시작해 1477년에 완공했는데 높이가 12척 7촌이고 둘레가 4,410척이었다. 이로부터 170여 년 후인 1649년에 창원 읍성을 개축했다. 이 상황을 「창원부읍지(昌原府邑誌)」에서는 돌로 쌓은 둘레는 2,004척 곡성(曲城)이 18곳, 웅성(甕城)이 4곳, 여첩(女堞)이 600곳이었으며, 남문의 이름은 진남루(鎭南樓), 동문은 향양루(向陽樓), 서문은 망미루(望美樓), 북문은 공북루(拱北樓)라고 각 루의 이름을 처음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북수문(北水門)안에는 우물 두 곳과 못이 하나 있었는데, 일제강점기와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읍성 대부분이 없어졌다.

그리하여 10여 년 전부터 창원 읍성 중의 일부인 동문 복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진행 속도가 답답하기만 하다. 물론 제대로 된 복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지만, 과연 잘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창원 읍성은 창원의 귀한 역사 문화자산이다. 이를 제대로 복원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다. 읍성의 많은 샘 중에 유일하게 남아 복원되어 있는 북동샘은 지금처럼 현대식이 아니라 전통 모습으로 다시 복원되어야 하며, 창원용지공원에 가 있는 창원대도호부 백선남(白善南) 부사 공덕비 등 창원대도호부와 관련된 비석들은 복원되는 동문 일대로 옮겨야 한다. 또한 동문지 복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객사(客舍)를 복원해 이를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 탐방길을 만들고 관광 안내 표지판도 만들어야 한다. 이미 의창동 일대에는 지역주민들로 이뤄진 마을해설사들까지 양성돼 있다. 이를 잘 활용해 창원의 역사적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창원 읍성 복원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잘 만든 랜드마크가 도시의 경쟁력을 키운다고 한다. 역사문화유산인 창원 읍성이 잘 가꾼 랜드마크가 되어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한 창원시가 되길 바란다.



2020년도 회기 운영 일정

월별	회 별	회 기	주요처리안건	비 고
1월	제90회 (임사회)	1. 16.(목) ~ 1.21.(화) (6일간)	• 조례안 등 기타 안건처리	
	제91회 (임사회)	1. 29.(수) (1일간)	• 긴급 안건 처리	
2월	제92회 (임사회)	2. 13.(목) (1일간)	• 긴급 안건 처리	
3월	제93회 (임사회)	3. 19.(목) (1일간)	• 긴급 안건 처리 • 행정사무감사사전준비(시기, 계획) ※ 결산검사위원 선임	
4월	제94회 (임사회)	4. 22.(수) ~ 5. 7.(목) (16일간)	• 조례안 등 기타 안건처리 • 시정 질문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4. 1.(수) ~ 4. 21.(화)
6월	제95회 (제1차 정례회)	6. 5.(금) ~ 6.30.(화) (26일간)	• 행정사무감사 • 2019회계연도 결산, 기금, 예비비 승인 • 조례안 등 기타 안건처리 • 시정질문 • 하반기 의장단 선거	
7월	제96회 (임사회)	7. 1.(수) (1일간)	• 하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창원시민의날 기념식 : 7. 1.(수)
	제97회 (임사회)	7. 16.(목) ~ 7. 23.(목) (8일간)	• 주요업무보고 •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처리	
8월			하 계 휴 가	
9월	제98회 (임사회)	9. 15.(화) ~ 9. 24.(목) (10일간)	•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처리 • 시정질문	추석연휴 9. 30.(수) ~ 10. 2.(금)
10월	제99회 (임사회)	10. 22.(목) ~ 10. 28.(수) (7일간)	•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처리	마산국화전시회 10. 30.(금) ~ 11. 8.(일)
11월 ~ 12월	제100회 (제2차 정례회)	11. 25.(수) ~ 12. 18.(금) (24일간)	•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 2021년도 예산안 •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시정질문 •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처리	

※ 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창원시의회

<http://council.changwon.go.kr>